

2020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결과자료집

www.dgarte.or.kr



목 차

chapter. 1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003
---------------------	-----

chapter. 2

천진낭만예술학교	005
----------------	-----

chapter. 3

1318예술학교	017
----------------	-----

chapter. 4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029
--------------------	-----

chapter. 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053
------------------	-----

chapter. 6

기타	131
----------	-----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 좌담회
-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알림 ON

chapter.1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성과 창의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나아가 예술과 지역민의 삶을 연계하여 예술교육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운영사업	사업내용
천진낭만예술학교	학교와 예술단체(인)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사 및 재학생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1318예술학교	학교 내 갈등, 불통현상 개선을 목적으로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학생 참여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후 교내 적용
교육개발 연구지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등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 및 예술교육현장전문인력의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활성화 도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리적 환경, 공간의 특수성, 주민수요 등을 집중 분석 및 기획하여 마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확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을 활용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아동·청소년 또래 및 가족, 소모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연수지원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좌담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간 소통 및 네트워킹 강화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장 취재 및 뉴스레터 발간

천진낭만예술학교





천진낭만예술학교

•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교육대상	초·중학교 재학생
사업참여	총 4개 초·중학교
사업유형	
공모지원	·문화예술을 기반을 둔 국어, 수학, 과학, 역사 등 타 교과목을 교사들 중심의 융합형 창의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주제별 다양한 장르를 이용한 통합교육을 통해 융합형 미래형 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학교명	장르	프로그램명
구지초등학교	다원	구지 소학동자(小學童子) Make-Art
동변초등학교	다원	꿈틀
대평중학교	음악	친구야! 학교에서 놀자
청구중학교	시각	A.P(Art Photo)

구지 소학동자(小學童子) MARK-ART

학교명	구지초등학교
교육기간	2020. 8. 31. 월 - 11. 23. 월
교육장소	구지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45-11)
프로그램 내용	· 구지초 소학동자(小學童子)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인성 예술 융합프로그램으로, 각 주제(자기탐색, 감정, 공감, 소통)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융합 활동 ·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바로 알고 건강한 마인드로 서로에 대한 이해, 배려, 소통, 어울림이 가능하도록 도서를 선정하여 발문을 진행 · 그와 연계 된 미술, 놀이 활동으로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의 장을 기획 구성함
교육대상	1 - 2학년, 5 - 6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 이현미, 박미영, 문혜영, 조영미 · 담당교사 : 배희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박미영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술 활동 온라인비대면 수업진행으로 PPT를 만들고, 사운드 넣고, 영상 찍고 시행착오를 거쳐 수업이 되는 것을 보니 그 보람도 두 배였습니다. 학교에 오면 항상 볼 수 있던 아이들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등교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과 아이가 그리운 선생님이 만나니 수업은 신났습니다. 처음에 덩그러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주치면 살갑게 반겨주고,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열정이 늘어갈 때 보람도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행복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	--

참여 학생 : 6학년 박민주

학년 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진 시기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천진낭만예술학교 수업은 미술 활동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업 활동의 그림책도 재미있었고 책을 읽어주시는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진낭만 수업으로 알게 된 책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은 후관 3층 벽에 전시된 도자기 타일 만들기 활동이었으며,
우익로 비닐 꽃 만들기 활동은 친구들과 웃으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책 읽기,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천진낭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꿈틀

학교명	동변초등학교
교육기간	2020. 6. 25. 목 - 11. 27. 금 / 8:40 - 10:00
교육장소	동변초등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60)
프로그램 내용	· 팼아트 (3학년) · 난타 (4학년) · 사물놀이 (5학년) · 우쿨렐레 (6학년)
교육대상	3 - 6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 박정하, 김언중, 조미옥 · 담당교사 : 임지영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김언중 아이들과 대화도 하면서 사물놀이 역사 및 악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실기를 병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친숙해져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채 잡는 법부터 기본 타법, 그리고 휘모리장단 도입 부분을 차례대로 익히고 연습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집중하여 재미있게 장구 연습을 하였습니다. 참여 학생 : 한채흔 외 2명 - 장구를 칠 때 절로 흥이 나고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를 완벽하게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고 더 노력해 더욱 더 멋진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 다양한 만들기와 그림그리기를 경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친구야! 학교에서 놀자

학교명	대평중학교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15. 화
교육장소	대평중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217)
프로그램 내용	· 학년별 프로그램 내용 - 1학년: 마음가는 대로 하는 연주 교육 활동 및 창작 (음악책 만들기) - 2학년: 교과목과 연계된 신비한 마술 세상 (기획과 공연) - 3학년: 테마가 있는 창작 마임·그림자 인형 뮤지컬 (기획과 공연) - 전학년: 나만의 책 만들기, 시집 만들기 · 토요 천진낭만데이 (테마가 있는 월별 활동) · 동아리별 활동장려 및 문화예술교육의 심미적 체험활동 전개 · 배우고 익힌 문화예술활동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교육대상	1 - 3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이미은, 강은영, 이종현, 류명현, 이대성, 손민정, 길은숙 · 보조강사: 서원덕, 오은희, 김순옥, 양승희, 권수은 · 담당교사: 김근식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강은영

두드림이란 단순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넘어 소리와 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져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를 나누고 만들어갈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아프리카 음악을 다룬 다고 했을 때 생소한 악기라 어색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악기가 있듯이 아프리카에도 있는 전통악기를 소개하고 나누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인들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음악이라는 부분은 그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악을 함께 나누고 표현할 때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한곡 한곡을 다루면서 낯설어하던 리듬과 노래에서 점점 익숙하게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소통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 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무대에서 연주를 했을 때 서로의 호흡과 책임감, 리더로써 무대를 잘 이끌어 가고자하는 주도적인 모습까지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것을 배워나가는 모습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빠격거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모두에게 큰 의미를 줬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악기와 음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었다는 것에 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천진낭만예술학교에서 주어져서 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은 가치에 참여 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참여 학생: 이종환

대평중학교에서 3학년 재학 중인 이종환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2020년 천진낭만예술학교 운영이 저희에게 많은 활동과 봉사로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타 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활동 중이지만, 그래도 타 학교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활동 전개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르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으로 수업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사고력과 실기의 능력이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저희들의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진낭만예술학교의 사업에 일환으로 봉사공연도 많이 하고 있으며 2020년 총 16회의 걸쳐 연주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 위한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술 활동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동심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천진낭만예술학교 수업이 음악을 전공하는 저에게 많은 관심과 기획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예술교육이 이루어 진다는 자부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우리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음악이 코로나19 시대에 일부분의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는 면에서 즐겁게 배우고 나누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Art Photo

학교명	청구중학교
교육기간	2020. 7. 3. 금 - 12. 23. 수 / 13:40 - 15:10
교육장소	청구중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827)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지역사회의 예술과 관광산업 발달을 기본 방향으로 학생들의 사진에 대한 예술성 부여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DSLR 카메라 활용 교육 - 다양한 렌즈활용을 통한 구도 학습 - 사진 촬영 초급, 중급, 고급 순차적 교육 - 고급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진 편집 기술 교육 - 휴대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 편집 교육 - 대구 및 타지역 유명 사진 전시회 관람 -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대구근대골목, 각 주요 지하철을 활용한 홍보 전시회 개최
교육대상	1 - 3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 박민우 • 담당교사 : 김병진, 양현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박민우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촬영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을 정취를 향유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가질 수 있었고,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진로탐색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 학생 : 김지훈 외 2명 - 예술사진에 몰두하다 보니 평범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환경과 공간들이 예술적이고 특별하게 다가왔으며 눈으로만 보는 세상도 마치 렌즈를 통해 보는 듯 한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고장의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크게 다가왔고 마음속에 있던 미적인 감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직접 전문 카메라를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인화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순간이 너무 뜻깊고 좋았습니다. 곧 다가올 전시회도 너무 기대가 된다. 나의 첫 사진 작품이 전시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 꿈만 같은 일입니다.



1318예술학교





1318예술학교

•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교육대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사업참여	총 4개 전문공연예술단체
사업유형	
공모지원	· 전문예술단체가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급과 학년별 특성을 반영한 창작/제작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형 예술 활동으로 구성

• 프로그램

기관(단체)명	장르	프로그램명
나무의자	연극	1318 Dream Concert 2 : 근대路 문학여행
사단법인 인디053	다원	Show me the 'LIFE'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연극	1318예술학교 역사뮤지컬 : 하와이 애국단
프리소울	음악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뮤지컬제작 프로그램! : 비 그리고 무지개

1318 Dream Concert 2 : 근대路 문학여행

단체명	나무의자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30. 수 / 14:00 - 16:15
교육장소	원화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30길 30)
프로그램 내용	· “즐거자”, “상상하자” 표현하는 문학이야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방향 - 근대소설 중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김유정의 동백꽃을 뮤지컬 대본으로 학생들과 각색 -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며 즐겨하는 노래와 춤을 가미하여 근대소설 작가 김유정의 ‘동백꽃’ 작품을 신체놀이와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의 풋풋한 밀당에 관한 사랑이야기, 닭싸움으로의 갈등과 해소되는 장면 등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본창작 -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 엄격함을 가장하지만 속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을 풍자한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현재상황과 연계하여 작품 구현 - 연기, 연출, 퍼포먼스 등을 지도하는 주강사 두 명과 안무 주강사 한 명, 보컬 주강사 한 명으로 수업 진행, 대본은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창작대본으로 진행
교육대상	1 - 2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 김민선, 석효진 · 안무 주강사 : 박예진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김민선

2020년 7월, 코로나19사태로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아 너무 다행이기도 반갑기만 수업들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학생들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수줍고 서로 친하지도 못해 쭈뼛쭈뼛 거리다가 한주 두주 지나면서 서로 웃고 친해지며 수업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주강사로 코로나19사태로 교육의 안전성과 아이들의 인성 쪽에 중심을 두어 서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려 힘을 썼었습니다.

근대문학 황순원의 소나기로 서정적 감성의 표현을 영상, 안무, 연기로 표현하며 즐거워하며 때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12월에 마침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과 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대본을 각색하고, 연기의 기초교육과 활자로만 볼 수 있는 감정이상의 상상력을 대본 분석하며 토론하며 두 분작가분들의 연력에 대해서도 공부하며 연기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올해의 1318예술학교 수업과 공연은 그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겠지만 주강사인 나에게도 평생 잊지 못 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 최연성

평소 연극을 보러가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연극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과 어우러져 연기를 게임처럼 즐겁게 이어나가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평소 학업 스트레스로 두통이 있었는데 매주 연기를 하기 위해 모이고 또,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두통 또한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는 내가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나게 해줍니다.

나를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피폐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지 잊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번 1318예술학교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대사를 맞춰볼 시간이 부족해 걱정했지만 서로 연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져 책임감 있게 각자 대사를 외워 하나하나의 장면을 맞춰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Show me the 'LIFE'

단체명 사단법인 인디053

교육기간 2020. 9. 22. 화 - 12. 8. 토 / 15:30 - 17:30, 14:30 - 16:30

교육장소 사수중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140)

프로그램 내용

- 힙합의 4대 요소인 랩, 비보이, DJ, 그래피티 교육
- 힙합의 각 파트별 전문가가 학생들과 직접 문화예술활동
- 힙합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관점을 표현

교육대상 중학교 1 - 3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박정빈, 정석환, 김종민
- 보조강사: 김경래
- 기획자: 신동우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박정빈

학생들이 교내에서 힙합이란 문화를 직접 전문가에게 배우고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 관점을 음악으로서 풀어 친구들에게 자신감 있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이 많다는 점이 꽤나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참여 학생: 김성희

힙합에 대해 어려웠 때부터 관심은 있었으나 명확한 학원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 중 힙합 전문가가 없었기에 늘 배움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았고 또한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주는 강사님 덕분에 음악 실력이 실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1318예술학교 역사뮤지컬: 하와이 애국단

단체명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

교육기간 2020. 9. 14. 월 - 12. 31. 목 / 14:30 - 16:30

교육장소 평리중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55길 21)

프로그램 내용

-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이란 장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체험으로 접근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역사 의식 고취
- 청소년이 뮤지컬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양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문화어울림을 목표
- 일제강점기,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통해 나라를 잃은 어두운 시절에 조국독립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재조명

교육대상 1 - 3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이혜지, 안성국
- 보조강사: 김희령

강사 및 **참여 강사: 이혜지**

참여자 후기

수업횟수가 줄어 계획을 세울 때 빠듯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을 잘 따라올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의 열정과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잘 극복하고 적응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극 주제로 강사와 학생들 모두가 어려워했습니다.

수업초반에는 영상을 통해 인물에 대해 알아보고 공연에 쓰일 노래를 들어보고 따라 불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노래와 연기하기를 부끄러워했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몸 쓸 시간이 없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안무를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반복연습을 통해 지금은 제법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매 회 수업을 할수록 늘어가는 노래실력과 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 선생님으로서 더욱 더 자세하고 진지하게 지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수업은 학생들에게는 생소했던 역사적 인물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자 선생님들에게는 몰랐던 역사지식을 알게 됨과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수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류선비

원래 공연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는데 뮤지컬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신청했었습니다.

뮤지컬 연습 처음 할 땐 모든 게 떨리고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선생님들께서 편하고 긴장 안 하면서 연습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직접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시고,

감정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뮤지컬 하는 학생 모두가 잘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계속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뮤지컬제작 프로그램!: 비 그리고 무지개

단체명	프리소울
교육기간	2020. 10. 5. 월 - 12. 10. 목 / 14:10 - 16:10
교육장소	범일중학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41길 23)
프로그램 내용	· “비 그리고 무지개”란 제목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빈번히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보여주는 내용 · 프로그램을 통해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와 방관자에겐 유연한 생각의 방법을, 피해자에게는 대처 및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뮤지컬 작품 속에 나타내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된 의도
교육대상	1 - 3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 송성훈(총감독), 여경민(총괄진행), 이희량(보컬트레이너), 이보영(연기, 안무 트레이너)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희량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1318예술학교를 통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어 매 수업마다 열정적인 수업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각 분야 선생님들의 맞춤형 수업으로 기초적인 부분부터 뮤지컬 제작현장까지 차근차근 배워가며 아이들 모두 보컬, 연기, 안무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해 뮤지컬이라는 예술에 대한 관심도와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신예영 대구 문화 재단에서 주최한 뮤지컬 수업을 받은 학생입니다. 평소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이번 수업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매 수업 시간이 즐거웠으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법과, 기본 성량을 키우는 법을 배우게 되어 평소 목소리도 커지고 발음도 정확해져서 놀라웠고 이번 기회에 노래와 춤, 연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기억이었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교육대상	청년, 일반, 어르신, 소외계층 등
사업참여	총 9개 기관·단체
사업유형	
공모지원	· 교육환경, 마을주민 특성 등 지역(구·군)을 소재로 집중분석을 통한 생활권 중심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프로그램

기관(단체)명	장르	프로그램명
(사)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구지부	전통	치유하는 음악극 '나 너 우리'
꿈꾸는씨어터(주)	전통	대명 6동 지역특화 주민예술교육 '대덕 주민예술단'
담쟁이도자기공방	시각	행복한 노년가꾸기! 힐링 도예수업!
대구여성영화제	시각	생애주기별 영상제작 교실
시인보호구역	시각	어르신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역사만들기
아마릴리스	다원	2만년 전 웅기종기
예술연구소 놀이하는마음	다원	마음 다방 - 나는 마음이 시키는 일만 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퓨전국악 이어랑	전통	'랑'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	다원	너의 하루는 어때

치유하는 음악극 ‘나 너 우리’

단체명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구지부
교육기간	2020. 7. 6. 월 -12. 7. 월 / 14:30 -19:10
교육장소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대구지부 교육실 (대구광역시 남구 대경길 332, 3층)
프로그램 내용	· 문학을 기반으로 한 ‘꽃 시’ 작곡을 통해 마음 속 선율 만들기 · 가야금 연주를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심 유발 · 움직임 표현을 통해 신체인식과 감정 조절 · 전통성악의 예술적 표현으로 심리 치유적 접근
교육대상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총 14명)
교육강사	· 주강사 : 이미향, 김민경, 배유라, 박혜민 · 보조강사 : 박채은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민경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호자들이 활동 시간에는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벗어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여자: 정현영 외 2명 - 커다란 꽃이 그려진 만다라 색칠 그리기가 좋았고 한삼 춤 출 때 도는게 힘들지만 재밌어요. -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가장 좋았고 특히 우리 아이가 어디가서 배우는게 눈치가 보였는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꽃 시’ 시를 핸드벨을 흔들어 음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내가 만든 선율로 노래를 만드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연주해보지 않은 가야금으로 내가 만든 노래 부르고 연주하니 즐거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것들을 접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대명6동 지역특화 주민예술교육: 대덕 주민예술단

단체명	꿈꾸는씨어터(주)
교육기간	2020. 7. 3. 금 - 12. 18. 금 / 13:00 - 17:10
교육장소	대명 6동 행정복지센터 (대구 남구 대명남로 73)
프로그램 내용	· <대덕주민예술단> 공연활동을 최종 활동 목표로 하여, 교육 종료 후 마을중심 활동 의자기 있는 대상 발굴 및 교육 · 전통문화예술의 생활예술화 접근
교육대상	대명 6동 마을 주민 44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진환(난타), 김경민(풍물) · 보조강사: 이정민(난타), 채종욱(풍물) · 기획자: 김동현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진환 외 1명 - 처음으로 북을 접하면서 힘들고 지루한 과정도 있기 마련인데 불평 없이 다들 열의 있게 수업에 임하시어 한 주 한 주 거듭될 때마다 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 번 씩 기가 밀려 정신없이 보낼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참여 학생: 최종숙 외 3명 - 난타와 풍물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어머니들에게 조곤 조곤 천천히 가르쳐주셔서 쉽게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난타와 풍물 수업을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래와 율동이 신나고, 매주 수업을 하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행복한 노년가꾸기! 힐링 도예수업

단체명	담쟁이도자기공방
교육기간	2020. 4. 1. 수 - 11. 27. 금 - 1기: 화요일_10:00 - 13:00, 목요일_13:00 - 16:00 - 2기: 화/금요일_13:00 - 16:00
교육장소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프로그램 내용	· 노인미술 심리수업을 흙을 다루는 소재로 정서적 안정감 및 자존감 향상 · 미술분야 중 도예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유 분위기 조성 ·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도자기공예에 대하여 이해 및 표현하기 · 참여자 스스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 획득하기 ·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들의 작품을 성과공유회 및 전시하기
교육대상	대구 달성군 노인 44명
교육강사	· 주강사: 주아영 · 보조강사: 김현준 · 기획자: 김대성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주아영 도예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게서서 호기심 가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 회기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이 되어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 강사: 김현준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친 마음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가꾸기 위하여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으로 더욱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문화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양분노 지역특성화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흙으로 조물조물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참여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역 결속력이 강화되고, 또한 완성된 작품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참여자: 노원구 흙냄새 맡으며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또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함께 참여자들과 기억을 회상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즐거운 추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2020 생애주기별 영상제작교실

단체명	대구여성영화제
교육기간	교육(성인):2020. 7. 8. 월 - 10. 12. 월 / 10:00 - 13:00 교육(청소년):2020. 7. 3. 금 - 10. 10. 월 / 16:30 - 17:30 내부시사회(성인):2020. 10. 19. 월 / 10:00 - 13:00 극장상영회(성인):2020. 10. 31. 토 / 12:30 - 15:30 내부시사회(청소년):2020. 10. 16. 금 / 16:30 - 17:30 극장상영회(청소년):2020. 10. 28. 수 / 16:00 - 19:00
교육장소	교육장 및 내부시사회:북구 구리로 25-19 2층 대구여성영화제 강의실 극장 상영회:북구 동암로 100 메가박스 북대구점 6층 1관
프로그램 내용	· 영상을 한편 만들기 위해 기획, 촬영, 편집을 배운다 · 영상편집 전문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혀 직접 편집을 해본다. · 소그룹으로 영상제작을 함께 진행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 사회문제,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진행하고 청소년감독으로써 자신의 영상에 대한 소개를 한다.
교육대상	성인 남녀 20명 (수료생 7명) 청소년반 10명 (수료생 7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상현 · 보조강사: 정유진 · 기획자: 손수정

강사 및**참여자 후기****참여 강사 : 김상현(성인반)**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끝까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작품을 완성한 7명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해 보다 다양한 주제, 내용성 있는 작품을 완성한 수강생을 보며, 강의를 진행한 강사 입장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민영상제작교실 20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여 강사 : 안미영(청소년반)

더운 여름날 마스크를 쓰고, 팀원끼리도 거리를 두고, 때로는 온라인 수업.
등교하는 날이면 학교를 마치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늦은 시간 배고픔을 참기도 하고 처음 듣는 용어에,
처음 해 보는 연기, 처음 해 보는 촬영, 처음 해 보는 편집.
여러 번 기획을 엮기도 하고, 힘들게 작업한 촬영본을 붙잡고 버리지 못해 미련이 남기도 하고.
음악하나 고르는데 하루가 가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한 친구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영상을 완성해
관객들 앞에 섰던 경험이 앞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자 : 구근재(성인)

예술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상편집에 대해 배우게 되면 유튜브등을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고 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상의 주제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추억할 수 있는 영상을 남기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여자 : 손지후/이유담(청소년)

영상을 찍는 걸 기획할 때부터 최근 관심사였던 유기견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톱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며 영상을 찍었는데,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나는 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진행해서 좋았습니다.
하루 최장 10시간30분 동안 편집해보는 기록도 세우게 되어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실사 촬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다. 영상을 만들 때 얼굴이 촬영 되는 게 싫어서
스톱모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찍고 표현 하는 게 무척 힘들긴 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큰 화면으로 보니 섬세하게 잘라지지 못한 부분 색칠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다면 신경을 더 써서 만들고 싶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역사만들기’

단체명	시인보호구역
교육기간	2020. 7. 2. 목 - 11. 26. 목
교육장소	대현도서관 (대구 북구 대현남로 43)
프로그램 내용	· 문화소외계층인 어르신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 재개발로 인하여 지역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들로 역사를 재구성하여 기록 · 동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기억과 추억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교류 활성화 · 사진예술을 매개로 교육대상자(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교육대상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문환 · 보조강사: 김송, 박정민, 손주희 · 기획자: 전운경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문환 사라져가는 것을 기록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은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만 남는 이 시대에서 지역에 오래 거주했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장소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또 그 시절을 함께 기억하고 추억하는 저희 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들인 어르신들은 물론, 강사인 저로서도 새로운 의미를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참여 수강생: 황순희 처음에 동네 사진도 찍고 역사도 배운다기에 부푼 가슴을 안고 참석했는데, 코로나 19로 수업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져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았고, 또 앉아서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하니 새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에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친절하니, 부담없이 수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만년 전 용기종기

단체명 아마릴리스

교육기간 2020. 6. 1. 월 - 11. 23. 월 / 10:00 - 13:00

교육장소 수목원 제일 풍경채 커뮤니티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12)

프로그램 내용

- 지역 문화자산을 주민들과 함께 문화예술로 풀어내기
- 지역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마을과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기
- 선사시대를 예술로 표현하고 지역 문화자산을 재조명
- 관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자산을 확산
- 지역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예술의 거리로 확산
- 주민들과 마을의 노래를 만들고 일상을 예술로 삶을 설계

교육대상 달서구 주민 총 15명 (30 - 60 세)

교육강사

- 주강사: 박정하, 이재강
- 보조강사: 임은주
- 기획자: 이성경

강사 및 **참여 강사: 이재강 회 2명**

참여자 후기

- 지역민들과 함께 마을 이야기를 나누며 문화예술로 2만 년 전의 선사인들의 마을공동체의 모습을 회상하며
용기, 종기 모여앉아 일상을 조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주민들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선사시대 공원을 탐방하고 글을 주제로 마을 노래를 만들어
우쿨렐레를 연주 하며 일상 예술의 삶이 되었습니다.
-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배워가며 2만 년 전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풀어나가고 지역 문화자산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자: 김성희

참여자 모두가 지역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 로 인한 갑갑했던 일상을 문화예술로 해소하며
만든 작품을 통해 가정에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다방: 나는 마음이 시키는 일만 하기로 했다

단체명	예술연구소 놀이하는 마음
교육기간	2020. 7. 9. 목 - 12. 10. 목 / 10:00 - 13:00
교육장소	물레책방 / 범어아트스트리트 교육실B
프로그램 내용	• 통합예술 - 몸과, 그림, 음악, 사진, 그 밖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본연의 나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 한다. • 나에게로 집중 - 오로지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서로가 발견한 각각의 '나'를 함께 들여다본다. • 다양한 표현방식의 결과발표 - 시화집과 원화 전시회, 출판기념회와 낭독 등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범어아트스트리트의 공간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대구 시민들과 공유한다.
교육대상	성인
교육강사	• 주강사: 김성민, 장하윤, 박정은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성민 내 방은 없어도 마음에 작은 방 하나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밥상을 차리고 뽀드득 그릇들이 깨끗해지고 맨날 똑같은 일 같지만 날마다 만들어 냈던 것이 소박한 기적이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작은 방에 찻물을 올려놓고 조용한 날, 아니 좀 분주한 나날이어도 이 방을 기억해낸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작은 방 하나,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방 하나... 늘 따스하다면 행복하겠습니다.
----------------	--

참여 강사: 박정은

예술과 삶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길, 자신만의 표현방식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길,

‘잘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길 오늘도 바라며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각자의 삶의 잊을 수 없는 장면들과 생각과 느낌들,

깨달음과 소중함을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벗님들 덕에 뭔가 많이 부족하던 제가 점점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정민아

아이를 낳고 기르며 아이들 수업에 따라다니기에 바빴다.

우연히 마음다방 수업을 알게 되어 신청했다.

목요일 아침, 아침 식사를 마치면 분주히 설거지를 하고 내 수업에 간다.

예술에 소질이 없는 나는 어른이 되고 그리기를 해볼 생각을 전혀 못 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작품을 써볼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마음다방에선, 명석을 깔아주고 선생님들의 마법 같은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작품 하나가 똑딱 나온다.

다음 시간 스케치북을 펼치면 '이걸 내가 지난 시간 그린 게 맞나?

물론 장하운 선생님의 마법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다.

동시 작가 김성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글로 후루룩 써본다.

글 속에 내가 있었다. 나도 모르던 내가 글 속에 나온다.

잊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표현되지 않았던 나의 철학이 그 속에 담겼다.

글과 그림으로 나를 남기는 시간이 참 좋다.

예술만으로 배부를 수 없는 평범한 아줌마에게 특히나 감사한 것은

박정은 쌤이 준비한 다양한 차와 간식들이다.

늘 섬세한 배려로 학생들을 살피고 도와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습니당~~^^



‘랑’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단체명	주식회사 퓨전국악이어랑
교육기간	2020. 7. 1. 수 - 11. 28. 토 / 10:00 - 22:00
교육장소	(주)퓨전국악이어랑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31길 172-2, 3층)
프로그램 내용	· 가야금 - 12현가야금 기초와 동요, 민요, 가요 배우기 - 25현가야금 ‘고향의 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기 · 판소리 - 판소리에 대하여 알아보기 - 시김새, 발림, 아니리, 장단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 피리 - 피리 연주방법 익히기 - 오선보 읽는 방법 익히기, 오선보를 보고 연주하기 · 해금 - 해금 연주방법 익히기 - 정간보 읽는 방법 익히기,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
교육대상	대구광역시 시민
교육강사	· 총괄기획자: 권영현 · 가야금: 류연주 · 판소리: 이자영 · 피리: 김휘대 · 해금: 황혜진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가야금): 류연주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의 진행이 매끄럽게 시작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대면수업이 시작되면서 수업의 열의를 가지고 흥미를 많이 느껴주셔서 강사로서 자부감과 끝까지 질 높은 수업을 해드리고자 하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매년 수강생들의 실력 향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어 더 많은 여러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

참여자: 이자영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워 진도며 주법을 습득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대면 수업이 가능한 날로부터 선생님의 수준맞춤 수업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연주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친절하고 상냥한 수업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참여 강사(판소리) : 이자영

미스트롯의 인기를 엮고 판소리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상승한 것에 대해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신청자들이 있었으며 재수강생을 비롯해 신규 참여자가 생겨

수업의 질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수강을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사업이 종료되어도 동아리 활동 및

취미로 소리를 꾸준히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며 전통의 개승하고 발전할 수 있음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욱 더 양질의 교육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수업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참여자 : 김근수

판소리의 매력에 관심은 있었으나, 선뜻 접하기 힘든 영역이라 생각되어 미루던 차에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레슨은

한 주간의 일정 중 몹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하게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동감 있는 매력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이어랑이라는 그룹에서 선보이는 퓨전 스타일은 국악이라는 영역이

앞으로 더 주목 받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같은 눈높이에서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신 덕분에 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강사(피리) : 김휘대

국악에 관심이 많은 대구시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국악기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악기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고 나서는 국악기의 매력에 빠지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강사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참여자 : 양채은

우연한 기회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피리라는 악기가 생소하여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계속 연습하고 연주하다보니 악기와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민을 위한 무료강습 프로그램이 매년 이어졌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다른 악기도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 강사(해금) : 황혜진

국악에 관심이 많은 대구시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국악기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악기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연습을 하시고 나서는 국악기의 매력에 빠지셔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강사로써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수업환경이 좋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참여자 : 주민영

우연한 기회에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간보라는 우리나라 악보가 생소하여 많이 어려울 줄 알았지만 계속 읽다보니 서양의 오선보 보다

더욱 쉽고 재미있었다. 대구시민을 위한 무료강습 프로그램이 매년 이어졌으면 좋겠고

만약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촬영 대신 무대에 오르고 싶습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단체명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
교육기간	2020. 7. 6. 월 - 12. 14. 월 / 14:00 - 17:00
교육장소	대구 동구 메디밸리로 18 LH혁신10단지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내용	• 소통의 부재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자기표현의 시간으로 만남의 장 마련 • 주민들 간의 화합 도모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 •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로 사회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교육대상	성인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신은숙 • 보조강사: 길은숙, 오은희 • 기획자: 손민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신은숙 자서전수업은 자기 자신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가는 수업인데, 진행할수록 참가자들의 열정에 저 또한 힘이 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을 힘나게 하는 자신의 책이 만들어지는 것. 그자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박수빈 처음에는 그림을 배우고 그림동화책 같은 자서전으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회차가 진행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나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여자: 최한결 책 만들기가 해서 참여 했는데 그림책인걸 알고 포기할까도 했지만 선생님의 응원과 지도 덕분에 잊고 지낸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지금의 감사함과 노후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술 도구가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코로나19로 수업이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1:1 개인 수업 진행 해주셔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chapter.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사업소개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교육대상	아동·청소년 및 가족
사업참여	총 35개 기관·단체
사업유형	
또래중심	·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교육대상으로 또래 간 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교류 활성화
가족중심	· 가족단위로 구성된 교육대상으로 세대 간 소통 문화 증진·활성화로 여가문화조성

• 프로그램

기관(단체)명	장르	프로그램명
(사) 국악사랑 해마루	전통	국악기 연주와 책 메이커로 국악 메이커 페스타 개최하기
FM 예술심리연구소	음악	FM현악앙상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센터	연극	우리가 만드는 달성 명소 이야기
담원목향회	시각	꿈꾸는 서화 놀이터
대경시민영상M	시각	세상을 담는 아이들
대구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	음악	오페라 악단, 꼬마 오케스트라!
대구다문화강사협회	다원	가면 속 별별 세계 문화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음악	뮤직비디오 "Who am I" 제작
댄스고 협동조합	무용	K-POP이 쓰아올린 작은 공
더(the)좋은뮤직컴퍼니 예람음악치료센터	다원	I'm a 뮤직크리에이터 : 5G 세대 예술적창의성 함양 프로젝트
(사) 경북예술문화원	전통	전래동화로 만드는 대구 토리 그림자극
(사)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	다원	고고(古GO)예술여행
(사) 한솔기 문화나눔 문화소통	다원	너랑 나랑 우리 모두 뽀뽀
사진연구소 빛그림방	시각	찰칵 찰칵 꿈을 찍고 희망을 찾아요!
소묘	연극	꿈다락 인문학 뮤지컬 아카데미
에이(A)-아띠	다원	토요일의 스카즈카
영남민요연구회	전통	‘대구의 인물 이재옥 중심 -Fun Fun한 국악뮤지컬’ 학교

● 프로그램

기관(단체)명	장르	프로그램명
(주) 한국파릇하우스	무용	장애·비장애 또래친구가 함께 하는 ‘토요일 무용극 놀이터’: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쿤스트하우스	시각	우리동네 발도르프 미술교실
희 컴퍼니	연극	얼쑤~ 옛이야기로 만나는 인문학 뮤지컬!
(사) 환경미술협회대구광역시지회	시각	흙으로 빛는 가족사랑
교육극단 나무테랑	연극	2020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인문학 뮤지컬 ‘삶 In문학’
대구스트링스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	우리 가족 신나는 싱싱싱 오케스트라
대구타악연구원	전통	타악 & 댄스로 다문화를 품다
대한문화예술경영학회	음악	그린아트 합창단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	연극	엄마랑 창의 상상 레시피
문화교육창작소 봄	다원	문학과 예술로 소통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사) 한국예다문화원	전통	엄마와 나, 놀이와 예절을 담다
아트고리	시각	나에게 던지는 질문
아트그룹 AMuse	다원	예술로 황금알을 낳는 우리동네
아트문화센터	음악	가족팝스 오케스트라
아하호(AHaHo)사랑공동체	다원	은빛채널
예봄협동조합	다원	장애아동, 그 가족과 함께하는 ‘Begin Again’
홀라(HOOLA)	다원	플레이 더 씨티:북성로편
힐링 우체통	음악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 합창! “얼씨구! 가족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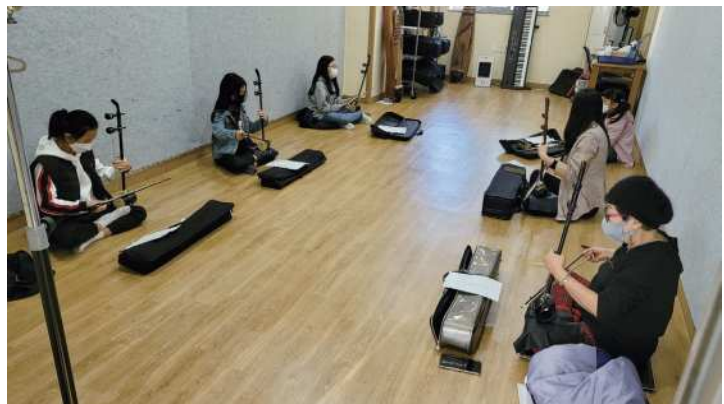
국악기 연주와 책 메이커로 국악 메이커 페스타 개최하기

단체명	(사)국악사랑 해마루
교육기간	2020. 7. 4. 토 - 11. 28. 토 / 8:30 - 11:30
교육장소	(사)국악사랑 해마루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서로 157-16번지, 3-4층)
프로그램 내용	· 국악기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원하는 국악기 연주, 국악책 만들기 등 학생 또래 집단을 위한 음악, 미술 융합 교육 진행
교육대상	초등학교 - 고등학교 (총 60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동현, 류혜지, 이서영, 이예슬, 정지향 · 기획자: 도경환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정지향 먼저, 올해부터 강사를 하게 되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선배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할 수 있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업에서는 잘 따라와 주는 학생들이 기특하면서도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려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기대합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김민정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많이 없는데 꿈다락을 통하여 악기를 배울 수 있음에 좋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체험학습이 많이 없는데 수업을 통해 함께하는 친구들과 합주도 하고
개인레슨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FM현악앙상블

단체명	FM예술심리연구소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9:00 - 12:00
교육장소	FM멀티실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롯데캐슬종합상가 2층 218호)
프로그램 내용	· 현악앙상블(바이올린 첼로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악기를 경험해보는 시간과 발달장애학생특성상 악기교육을 통해 사회성교육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장애 초·중·고 학생 (총 12명)
교육강사	· 주강사 : 채민, 지홍미, 박주현 · 보조강사 : 이성욱 오선예, 성은희, 이승화, 류혜인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오선예 코로나 19로 참 어렵게 만들어진 시간들이었는데 함께 참여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진지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선생님으로서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음악이라는 매개체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 백지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언제하나 언제하나 했는데 다행히 7월부터라도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으며 늘 꿈다락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작은 선물처럼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화합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새삼 뿌듯하고 엄마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달성 명소 이야기

단체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문화센터
교육기간	2020. 7. 4. 토 - 10. 31.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달성문화센터(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실역북로 2길 188)
프로그램 내용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소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이야기를 배우는 교육 · 이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들을 생각하고, 인성과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명소이야기 스토리텔링, 현장탐방, 동극 발표회
교육대상	초등학교 2 - 4학년(총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권현숙, 이은숙 · 보조강사: 박명주, 임현주 · 기획자: 박명주, 류지영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은숙 코로나 19로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에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우리가 만드는 달성명소이야기’ 프로그램은 10회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밝고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매 주마다 초롱초롱한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교감을 하니 어느새 정이 들고 유행가 가사처럼 눈빛만 봐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활동과는 다르게 함께 모여 소통하고 사고하며 ‘경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허여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문화탐방과 간식타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서화놀이터

단체명 담원목향회

교육기간 2020. 7. 1. 토 - 12. 12.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담원목향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1길 303호)

프로그램 내용

- 서예, 한국화와 타분야를 융합하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자 프로그램 기획
- 서예, 한국화 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 도야와 창의력 증진 도모
-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생활에 글씨, 그림 문화가 내재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친근하고 쉽게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16명)

교육강사

- 주강사: 오지혜, 이경진
- 보조강사: 오현아
- 기획자: 김대일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경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며 진심과 정성을 담아 펼쳐낸 커리큘럼.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 넣은 수업내용과 활동, 그리고 강사들 모두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자칫 주말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토요일의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기도 잘 참여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활동이 재미있다는 학생들의 말에 모든 활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학생(기서연) 부모: 김정미

꿈꾸는 서화놀이터에 참여하면서 평소 집에서는 사용해보지 못한 재료들로 만들기,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미술활동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꿈꾸는 서화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담는 아이들

단체명	대경시민영상M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4:00 - 17:00
교육장소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7층)
프로그램 내용	· 청소년의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직접 제작 · 영화 장르의 이해하고 영화 속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청소년 스스로 성립 · 일반적인 영화 제작·상영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발표회를 통해 무장애영화(배리어프리영화)의 제작과 관람 기회 확대 · 지역 청소년 영상동아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 마련
교육대상	고등학교 1 - 2학년(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박지하 · 보조강사: 이수빈, 손승범, 서미진 · 기획자: 장기탁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박지하 3월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활동홍보를 하고 참여 신청서를 하나씩 받으며 기대를 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라는 변수로 인해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가 훌쩍 지나고 7월이 되어서야 첫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이었죠. 예전 같으면 한창 1학기 활동을 마치고 8월에 있을 여름영상캠프를 기대하고 또 즐기며 친구들과 많이 친해져 있을 때인데, 온라인으로 처음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왜 그리 반가운지 선생님들이 더 신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후에 상사된 대면활동에서는 비록 마스크가 학생들의 얼굴을 다 가렸지만 오랜만에 대외활동으로 신나게 반짝이는 눈빛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영화작업은 실제 만나고 대화를 통해 협력해 나가야만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직접 장비를 만지고, 우리의 시나리오를 이미지로 잘 표현해내기 위해 함께 화면을 공부해야하는 소통과 소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출석률보다는 대면 수업, 특히 장비 실습이나 실제 영화 제작이 들어가는 활동에서 참석률이 높았습니다. 축박했던 시간 속에서도 학생들은 영화라는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멘토링을 받아 스스로 제작팀을 꾸리고, 장소와 배우 섭외를 위해 발로 뛰며 실제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만나서 영화를 만들어 냈고, 그 영화의 이야기 또한 가족의 사랑,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만남과 소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좀 더 많이 하기엔 약 6개월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강사로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완성한 영화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함께 작업한 친구들과 협력의 의미를 느낀 초롱초롱한 눈빛을 올해도 발견했기에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보게 됩니다.
----------------	---

참여 학생: 김다정 상원고등학교 2학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올해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할까 고민하던 올해 초 세상을 담은 아이들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또래들이 모여 함께 카메라, 조명, 오디오 조작법 그리고 영상편집까지 배울 수 있는 활동이라는 설명을 듣고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연기되었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던 찰나 비대면 수업으로 세담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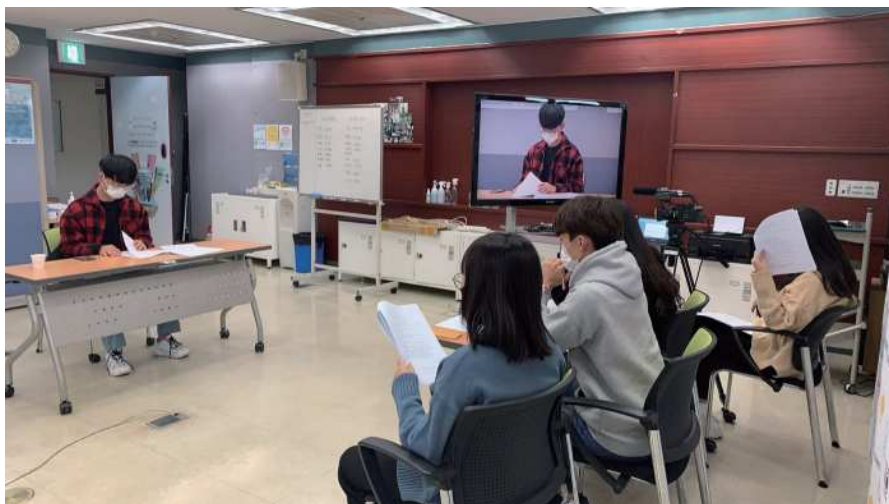
작은 화면 속 처음 보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소개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글펐습니다. 몇 달 전까지 만해도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사이였던 우리가 작은 화면 속 각자의 위치에서 사이버로 만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도 거리를 두어 친구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였고 이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 작업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는 도저히 단편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작업이 굉장히 촉박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학교생활 와중에도 단편영화 작업에 힘써주고 있는 팀원 모두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걸맞는 작품이 나올 것이라 모두 믿고 있습니다.





오페라 악단, 꼬마 오케스트라

단체명	(사)대구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	
교육기간	2020. 7. 4. 토 - 11. 14. 토 / 10:30 - 12:30	
교육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별관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프로그램 내용	· 오페라 수업 및 클래식 악기(바이올린, 첼로) 수업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24명)	
교육강사	[1기수] · 주강사: 이희정 · 보조강사: 원재원, 안성준, 최은영, 노선균, 전성은 · 기획자: 김도연	[2기수] · 주강사: 지세현 · 보조강사: 유재은, 안성준, 최은영, 석지현, 손영훈 · 기획자: 김도연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지세현

아이들과 함께 매 주 토요일에 만나는 것이 기다려질 정도로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수업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업에 대한 연구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클래식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적용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마치 무대에 선 오페라 배우가 된 양 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지면서 이러한 기회와 수업들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의 리허설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수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교육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학생: 박세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 중 제일 좋았던 수업은 첼로로 곡을 배우고 연주할 때입니다. 수업을 받으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첼로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속 별별 세계문화

단체명	대구다문화강사협회
교육기간	2020. 8. 11. 화 - 12. 13. 일 / 10:00 - 13:00
교육장소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3층 배움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1길 56) 외
프로그램 내용	· 중국, 몽골, 태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등 6개 나라의 가면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기후, 음식, 놀이 등을 아이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 · 다양한 문화를 알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 · 언어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모두 겸비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1 - 4학년 (총 30명)
교육강사	· 주강사 : 권하연, 아누사라카나준, 토이키예와예카테리나, 찐티웅우엣, 이마이유코, 김은경, 장영 · 보조강사 : 이지은 · 기획자 : 한귀분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권하연 전 세계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고 하니 비대면 수업에 대해 아무 경험이 없는 우리 강사님들이 당장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대표 입장에서 막막하였습니다. 우리 협회 수업 특성상 각 나라의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하에 만들기와 체험 위주로 진행되는데 비대면이라니... 그렇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부딪혀보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6월부터 중국어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작한 경험이 있고 또한 보조강사인 이지은 선생님은 컴퓨터 전문가라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비대면 수업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교육자료 키트를 만들어 매주 도서관에 가져다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또 매주 금요일마다 교육자료를 배부해주는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담당자분, 그리고 매주 도서관에서 교육자료와 간식을 챙겨 토요일 아침이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챙겨준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까지 수업을 재미있고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협회의 선생님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겁고 재미있게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학생 부모: 장은희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 단비, 하준이에게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수업은 주말이 더 기다려지게 해 주는 즐거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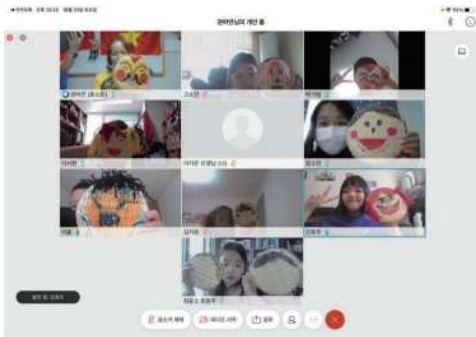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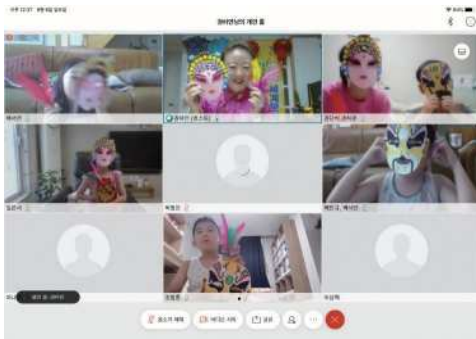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수업에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준비물 키트와 간식까지 세심히 다 챙겨 준비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 창에서 만나는
각 국 선생님들과의 수업도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아이들 모두 수업이 진행되는 끝까지 알차고 유익하게 즐거운
수업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엄마로서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주신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선생님들과 관계부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참여 학생: 권하준_1기 발표회 최우수상 불로초등학교 1학년 3반

“가면속 세계 별별 세계문화” 수업을 배우고 나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도 더 궁금해졌어요!
열심히 더 공부해서 똑똑한 하준이가 될게요.”





Who am I

단체명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9. 토 / 9:00 - 12:00
교육장소	물베기 마을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75-1)
프로그램 내용	· 직접 자작곡을 만들어 영상 제작 및 유튜브를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총 2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최흥기, 전재현, 박철하, 박호일, 변지섭, 양수진, 강나리 · 기획자: 하 에스더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최흥기

직접 노래를 만들어 만든 노래를 영상으로 제작 하는 것이 조금 바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수업일수가 줄었지만, 참여학생들의 흥미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개인이 한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룹으로 한 곡을 만드는 작업을 병행 해 운영되었습니다.
직접 만든 가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삶의 정체성과 미래를 설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이건희

음악을 좋아하지만, 작곡을 직접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으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참여해보니,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곡을 만들고 같이 연주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니 비슷한 생각들. 고민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K-POP이 쏘아올린 작은공

단체명	아트지 협동조합
교육기간	2020. 7. 1. 토 - 12. 9. 토 / 11:00 - 14:00
교육장소	대구시 청소년 문화의집 꿈지락발전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길 34길 48-1)
프로그램 내용	· 창작 댄스 교육 프로그램으로 K-POP댄스를 시작으로 춤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스트릿댄스의 다양한 장르를 체험한다. · 창작 안무와 발표회 준비과정을 게이미피케이션구조의 협동학습을 통해 또래간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경험하는 댄스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총 60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기영, 박혜진 · 보조강사: 강선구, 계혜승, 류희정, 이지현 · 기획자: 석한솔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박혜진 학생들의 창작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험이 흔치 않는데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며 퍼포먼스를 창작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참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	---

참여 강사: 이기영

이제 겨우 이름을 외워갈 때 즈이면 아쉽게도 다음 기수로 넘어가 버려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보는 것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달아 긴 시간의 수업이지만 지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지 못해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강사: 강선구

아카데미가 아닌 곳에서도 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건 소통 할 수 있고 예술가가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 강사: 계혜승

주말 아침에다 코로나 여파로 걱정했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주어
커리큘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보게 되었고 댄스에 흥미가 있고 끼가 많은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꿈을 찾는데 이 수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강사: 류희정

아무래도 생소한 춤의 장르들이다보니 처음에는 해매는 모습도 보이고 했지만,
케이팝노래에 스트릿댄스도 배우고 같이 안무도 짜보면서 점차 적응하고 받아드리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장르적으로 더 깊게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정도로 친구들이 잘따라와줘서 앞으로의 수업들도 기대가 됩니다.

참여 학생: 서나영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창작안무를 해보는 경험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쉬는 기간이 길어서 아쉬웠습니다.

참여 학생: 장은총

티비에서 보던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씩 다 배워봐서 신기하고 유익했습니다.





I'm a 뮤직크리에이터

단체명	더(the)좋은뮤직컴퍼니 예람음악치료센터
교육기간	2020. 7. 11. 토 - 12. 12. 토 / 13:00 - 16:00
교육장소	달서구립 성서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남로 129)
프로그램 내용	· 아이패드를 활용한 나만의 미디어 음악을 만드는 뮤직메이커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3-6학년 (총 3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이현정, 이재훈, 이새은 · 기획자: 이현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재훈 수업을 준비할 때 주 강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고,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손을 통해 음악이 만들어지고,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고 강사들도 기분이 좋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 매체가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장○○

아이가 재밌고 새롭다며 많이 좋아했는데, 벌써 다음 주가 종강이네요. 좋은 수업 고맙습니다.
그동안 좋은 수업 기획 진행해주셔서 수업 가는 날 매번 즐거워하는 아들모습보고 행복했습니다.
동영상 연주회도 잘 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수업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참여 학생 부모: 정○○

아이가 수업하는 내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면서 많이 아쉬워했어요.
고맙습니다 ^^



전래동화로 만드는 대구토리 그림자극

단체명	(사)경북예술문화원
교육기간	2020. 7. 1. 수 - 11. 30. 월 / 10:00-13:00
교육장소	대구시립중앙도서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0길 25)
프로그램 내용	· 대구팔경 소재를 동화로 구성하여 그림자극으로 만들기
교육대상	초등학교 1-3학년 (총 4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최윤정 · 보조강사: 서은애, 김유진 · 기획자: 서정미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최윤정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늦게 시작하고 또 진행되는 기간이 짧아 요독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지금까지 심없이 달렸음에도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우리 프로그램.
밴드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들어 전날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적극적인 댓글과 응원, 바로바로 올리는 과제 등으로 비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만나서 대면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으로 꿈다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참여 학생, 부모: 객나윤과 부모님

처음 꿈다락을 해보았는데 진짜 재미있었어요.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 만들기도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특히 그림자 인형극 무대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모스와 슬라임으로 산과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피규어로 장식하는 것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민요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재미있는 줄 몰랐는데 꿈다락 선생님과 배운 <웅헤야>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게 노래하고 개사해서 노래하고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대구에도 명소가 그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어요.

다음에는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꼭 수업하고 싶어요.
저 다시 꿈다락 수업 듣게 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고(古GO)예술여행

단체명	(사) 한국수공예디자인협회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5. 토 / 9:30 - 12:30
교육장소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93)
프로그램 내용	· 과거 여행자가 되어 공룡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물과 인물에 대해 탐색 · 현대적 다양한 공예재료로 표현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서영옥, 최문숙, 우송희, 류새미 · 기획자: 최영희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서영옥 수업의 시작은 항상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과 연관이 있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했습니다. 어린 해성이가 잘 못하면 고학년인 재열이가 도와주기도 하고, 화기에애한 수업 분위기였습니다. 처음보다는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고 꼼꼼하게 창의적으로 만들려고 완성도를 보여주어서 기특하고,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참여 학생들이 따라오기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였으나 매회 다른 프로그램으로 체험하며 아이들이 다음 주에는 무엇을 만드는지 기다리는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참여 학생: 김수정_6학년 공룡공원에 가서 뼈 발굴 체험과 공룡발자국도 보고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을 해서 즐거웠습니다. 단순한 역사로만 알았던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지로 팔각접시를 만들었는데 예쁜 한지로 다양하게 꾸며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좋아하는 보석 십자수를 활용하여 유물을 표현해서 성과발표 전시회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관련해서 더 많은걸 배워보고 싶습니다.
----------------	---



너랑 나랑 우리 모두 뽀뽀

단체명	(사)한솔기 문화나눔 문화소통
교육기간	2020. 7. 11. 토 - 12. 12.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사)한솔기 문화나눔 문화소통 교육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42길 13-7)
프로그램 내용	통합예술프로그램 : 영화+예술치유+예술교육프로그램 · 예술프로그램 : 영화,악기-가야금, 장구, 우쿨렐레 - 문화소외계층의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함으로 통합 예술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의 감수성을 채우는 교육 · 예술치유프로그램 - 환경에서 오는 정서적인 위축감 등을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또래와 집단 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돕고자 하는 교육
교육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 안진경, 심현지, 김보람 · 보조강사 : 황혜진, 배선형 · 기획자 : 임윤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안진경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활동과 비말활동 금지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업 진행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사들과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참여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코로나 지침을 잘 지켜준 덕분에 수업진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활동이 익숙하여 그 상황에서 즐겁고 보람되게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때 달님 보며 '꿈다락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소원을 빌었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토요일마다 강사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 학생 부모 : 김주아 처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알고 수강신청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나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일정을 포기하면서 토요일 아침 수업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교육을 즐겁고 신나는 방법으로 익히고 다양한 악기들을 접하면서 늘 집에서 즐겨 부르던 가요가 아니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배워온 노래들을 신나게 부르기도 하고 얼마 전부터는 가족들 앞에서 '홍보가'를 흥겹게 부르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번으로 아이가 저렇게 잘할 수 있는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완성도를 보면서 '아 정말로 성의있게 즐겁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토요일 아침이 되면 "토요일이야?" 하고 잠을 깨는 게 아니라 "꿈다락 가는 날이야?" 하면서 벌써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알게 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늘 감사드려요!



찰칵찰칵 꿈을 찍고 희망을 찾아요!

단체명	사진연구소 빛그림방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11. 금 / 10:00 - 13:00
교육장소	사진연구소 빛그림방(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50, 4층)
프로그램 내용	· 사진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하고, 야외촬영 문화유적 답사, 체험 활동으로 상상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배양하며, 글쓰기와 결과물 발표를 통해 친구, 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2 - 5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윤국현, 정용수, 이화선 · 보조강사: 최양수, 김정현, 김진경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화선
올해 전반기는 마스크를 쓰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느덧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즐겁게 알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좋은 결과에 만족합니다.

참여 학생: 김건후, 이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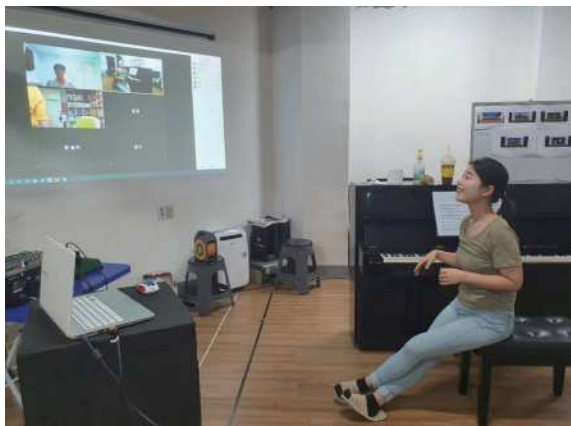
- 처음 들어 가보는 암실이 좀비 실험실 같아 재미있어요.
- 암실 작업이 기억에 남고, 답사 촬영에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 야외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며 사진 찍는 것도 좋았어요.





꿈다락 인문학 뮤지컬 아카데미

단체명	소묘
교육기간	2020. 7. 1. 수 - 11. 30. 월 / 13:00-16:00
교육장소	젊은 예술가들의 놀이터 “천권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31)
프로그램 내용	· 뮤지컬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유명 뮤지컬 대본을 분석하여 극중의 캐릭터 분석과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며 그에 따른 뮤지컬 넘버와 안무 교육 진행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총 10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백창하, 이선주 · 보조강사: 박도운, 김채현, 권성윤 · 기획자: 남가형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백창하 사업이 선정되고 "그래 내가 생각해왔던 예술교육을 만들어보자!" 며 부푼 마음으로 학생들을 모집했고, 야심찬 마음으로 수업들을 하나한 준비하였습니다. 첫 학생들의 얼굴을 보기도 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은 정말 아비규환 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수업을 준비해왔던 동료들과 모든 계획을 재정비하고 서둘러 온라인 수업 과 방역 등 한걸음씩 진행하다보니 드디어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잘해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사진 그리고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걸어온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왔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게 고마웠던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강사: 이선주 올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수업이 진행이 될까 싶었는데, 잘 따라와 주는 아이들 덕분에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스크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것 어려웠을텐데 호흡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강해서 저 또한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우 알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학생: 전은정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뮤지컬 수업이 있다면 꼭 배워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을 더 다양하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친절하셔서 어려운 것도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이희원 일주일에 한 번 연습실에 나오는 게 그냥 나에게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여러 안무수업이라던지 노래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밝아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고 싶습니다.



토요일의 스카즈카

단체명	A - 아띠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5.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대곡 LH천년나무 행복나눔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로 33)
프로그램 내용	· 그림책을 베이스로 한 미술, 음악, 공연의 통합적 예술활동에 의한 학생들의 소통과 감성 강화 프로젝트 수업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이현미, 박미영, 석지원, 전다은, 리트브젠코 나탈리아 · 기획자: 조영미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박미영

이제까지 그림책과 미술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토요일의 스카즈카>는 음악이 더해져서 훨씬 내용이 풍요로워져 그 자체만으로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을 처음 만나봤는데 한국말을 잘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예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힘들었던 수업준비를 싹 잊을 수 있었습니다.
뭐든 해 주고 싶은 달콤한 시간. 아이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사위 삼고 싶은 멋진 오빠 승언이 승오, 미소가 예쁜 영준이, 새침한 유나, 분위기 메이커 알리아, 마음 여린 반항아 요셉,
과묵한 예릭, 파티걸 사미라, 눈이 예쁜 마리아, 귀염둥이 도영이, 항상 열심히 다밀한, 씩씩한 제이슨, 사랑스러운 다니엘,
천사같은 한별이, 금쪽같은 막내 현민이.

미술 선생님 두 명이 들어가는 수업은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의 선생님이 함께 들어가는 수업은 처음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두 분, 미술 선생님이 두 분이 되니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수업의 질이 나아지고,
선생님 여러 분이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 한명에게 훨씬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과 미술, 음악이 더해지는 과정이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툼레네바 잔나_제이슨, 엄마

<토요일의 스카즈카>가 정말, 정말 색다르고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토요일마다 새로운 동화 배우면서 재미있는 미술 활동과 음악 활동을 즐겁게 했고, 러시아어, 음악과 악기도
배울 수 있어서 러시아 엄마인 나는 매우 만족스럽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자기 느낌과 생각을 해맑게 이야기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가능하면 내년에도 꼭 하고 싶어요!!



‘대구의 인물 이재욱 중심-Fun Fun한 국악뮤지컬’ 학교

단체명	영남민요연구회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4:00 - 17:00
교육장소	영남민요연구회(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64-15)
프로그램 내용	· 대구의 문화예술인물인 영남소리연구가 ‘이재욱(1905~?)’의 작품집에 담긴 곡들을 소리, 연기, 춤 등을 국악 뮤지컬(창극) 형식으로 풀어내어, 대구 지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18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배경숙 · 보조강사: 허재운, 박효지 · 기획자: 권태룡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배경숙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한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 우선 참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의 우려와는 다르게 어쩌면 생경한 영남의 소리와 춤을 곧 잘 따라하였으며, 톡톡 튀는 생각의 표현은 신선하였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울러 수업을 통하여 처음 만난 친구, 형, 누나, 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은 어쩔 더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운 노래로 공연에 참여하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대회 참여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음은 또 다른 보람이었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전은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참가하면서 노래 외 여러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 옛날에 사용하던 물레와 맷돌을 돌리고 방아를 찧는 것은 신기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뜻밖에 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노래하며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여하여 배운 노래를 불렀는데 큰상을 받아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앞으로 친구,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단체명	(주) 한국파릇하우스
교육기간	2020. 7. 8. 수 - 12. 12. 토 / 9:30 - 12:30
교육장소	한국파릇하우스 교육장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 17 월성청구코아 4층 402호)
프로그램 내용	· 언어적 소통이 힘든 장애아동을 위해 비언어적 소통이 중심인 ‘무용극’의 형태를 활용하여 장애+비장애 친구가 함께 기존의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하여 진정한 사랑과 모든 생명의 소중한 존재가치를 알아가는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1 - 6학년
교육강사	· 주강사: 남민아, 김은숙 · 보조강사: 김무혜, 장윤정 · 기획자: 이상극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남민아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 변경신청을 통해 기획·연구 6회기와 교육프로그램 14회기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좀 더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고, 연구원들과 주강사, 보조강사의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나 참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장애·비장애 친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 제목 그대로 친근한 이야기라 참여하는 친구들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줄거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활동마다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여러 활동에서 거북이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어보기도 하며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장애·비장애 또래 친구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고, 회차마다 약 3시간을 같이 뛰어 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를 수용하고 편견없이 장애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지원되어서 장애·비장애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우리동네 발도르프 예술교실

단체명	쿤스트하우스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4:00-17:00
교육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프로그램 내용	· 다양한 예술 장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오감을 자극하고 표현력을 다양하게 꾸며주고,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사고할 준비를 갖추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총 3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장순정, 백채명 · 보조강사: 조승범 · 기획자: 이승재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장순정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들에게 발도르프 미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성장발달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감정적 표현의 해소와 통제, 자기신체인지 조절능력, 자기효능감상승등 이 발달 할 수 있게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기 교육 후기] 전반적 아동들이 고학년이라 짧은 이론적설명과 작품결과물들을 가지고도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 좋은 피드백과 각각 다른 스토리텔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비대면 수업진행으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기 교육 후기] 전체 아동이 저학년으로 수업진행방식을 이론적 설명과 피드백 보다는 시각적 요소를 더 많이 추가해서 색채 체험 또는 재료의 탐구실험적인 단계로 진행되어 좀 더 유희적인 재미요소를 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아이들 개개인의 집중과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을 기다리고, 행복해 하는 시간을 마주하며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자, 기획자, 예술가로서 조금이라도 동시대의 어린이들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공유하고, 소통하였던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이소윤 아이가 수업을 하는 동안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수업 후 아이의 밝은 얼굴은 수업이 흥미로웠다는 것을 설명해 주더군요. 뮤지컬 토요 꼬다락 수업이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더군요. 수업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도 흥얼거리고 다닙니다. 내년에도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 쑥쑥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얼쑤! 옛이야기로 만나는 인문학 뮤지컬

단체명	희 컴퍼니
교육기간	2020. 7. 4. 토 - 11. 7. 토 / 11:00 - 13:00
교육장소	극장 작은무대(대구광역시 남구 계명중앙 1길1, 지하 1층) 극장 기차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114, 지하 1층)
프로그램 내용	· 8가지 옛이야기 동화 속 프로그램을 연극, 무용, 타악, 미술, 음악 5가지 영역을 접하고, 고모령 전설의 남매를 주제로 연극 발표하는 과정
교육대상	초등학생 1 - 6학년 (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 남현주, 이보영, 이영규, 추현주, 김은빛, 장재령 · 기획자 : 이수진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남현주 이번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작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수업을 해왔습니다. 모의 수업도 너무 즐거웠지만 다른 전문분야의 선생님들과 각자의 전문성이 들어간 옛이야기 뮤지컬은 아이들의 흥미와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수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융합예술 프로젝트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만들고 싶습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발도르프 미술 수업을 듣고 오면 조잘조잘 어찌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참여에도 적극적이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때에도 모니터 화면에서 나오는
선생님의 수업도 재미있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꼭 발도르프 수업에서 선생님들을 뵙기를 희망하며 감사했습니다.



흙으로 빛는 가족사랑

단체명	(사)환경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12. 토 / 14:00 - 17:00
교육장소	토산도예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6길 8-9)
프로그램 내용	· 도자공예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소품, 생활도예 만들기 등 가족단위 도예 및 예절 교육 진행
교육대상	초등학생 - 중학생 가족 (총 16명)
교육강사	· 주강사 : 문차식, 신재순 · 보조강사 : 김명주, 도은화, 권순칠, 황문교 · 기획자 : 유희숙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 유희숙 _ 기획자 1년 전 토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짧지만은 않았던 기억을 아쉬움으로 더듬어 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점점 더 소통이 소홀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아가 흙이라는 친환경적인 매개체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행복한 가족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도자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작품 제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년간의 수업을 함께한 여러 강사님의 노고와 수고로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불어 참여한 모든 가족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여 학생 : 김예현, 부모 : 하채연 올해는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학교도 매일 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일상의 연속에 조금은 지루하고 힘든 나날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 나에게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학교 안팎의 활동들로 늘 바쁜 아이와 엄마가 토요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하며 하나씩 작품을 빚어나갔던 10주동안 경험의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께도 아이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극단 나무테랑의 “삶in문학”

단체명	교육극단 나무테랑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6:00-17:00
교육장소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대구 수성구 지범로 41길 36)
프로그램 내용	·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고전문학을 통한 인문학 입체 낭독극 교육 프로그램 · 입체 낭독극으로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안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의상과 무대, 음향과 조명을 이용한 연극,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예술 장르를 이용하여 인문학과 예술을 접목한 융·복합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14명)
교육강사	· 주강사 : 민경조, 주소현, 김서우, 김선유 · 기획자 : 서민경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선유 가족 단위로 뮤지컬 수업에 참여하고, 또 그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낭만적인 일임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극·뮤지컬 체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다. 특히나 가족 단위로 듣는 뮤지컬 수업은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내가 연기를 하다니!’. 낯간지럽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느껴지는 꼬마 수강생의 혼잣말이었다. 거기에 노래와 춤이 더해지니 더욱 좋다. 바이러스 시대에 가뜰이나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 단위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천하는 부모님의 의지가 더욱이 대단한 점으로 간주되어 매 수업마다 그들의 열정에, 책임감에, 이 수업에 강사로 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여 학생 부모 : 이지연

토요일 4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

코로나19로 수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7월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수업으로 아이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읽고 공감해주는 시간은 내 아이의 또 다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그림, 글, 작품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면서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재능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아이의 또 다른 재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한 시간을 선생님과 여러 가족과 함께 하여 쉽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추억이 많은 가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수업과 방역에도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 학생 : 이수민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해서 즐거웠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으로 이야기 나누며 이해하는 마음을 배워나가 신나게 노래를 불러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 연극 활동이 나를 활발한 성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술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면서 나의 연극 실력이 점점 더 잘하게 되어 기뻐다. 연극으로 이야기 주인공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내가 이야기의 주연이 되어 그 이야기를 이해해 그 기분을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 하며 연극을 하는 것이 가장 잘 되었습니다. 특히 감정카드를 사용한 게임은 기억에 남았다

왜냐면 친구들의 표정, 몸짓, 말투를 보며 감정(기분)을 많이 맞혀서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에 데리고 가주신 엄마께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추억을 만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신나는 싱싱싱 오케스트라

단체명	대구 스트링스 심포니오케스트라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12. 토 / 10:00 - 12:00
교육장소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17길 49)
프로그램 내용	· 일반인 가정, 발달장애우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악기 연주 체험 및 교육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28명)
교육강사	· 주강사: 정종영, 오영미, 함윤혜, 강유진, 정성운, 김예담 · 기획자: 정우령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오영미

서로 배려하고 배우려는 열성을 보고 열심히 교육하게 되고, 실력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니 너무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과 장애인친구들과의 배려심과 이해와 소통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 가족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학생 부모: 정현기 외 3명

- 바이올린은 처음 해보는데, 악기를 잡는 자세를 배울 때에는 어깨가 좀 아팠지만, 활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 플루트는 소리가 맑고 커서 연주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며, 몇 개월 만에 노래를 3개나 완성한 나의 모습이 참 대견하게 느꼈습니다.

-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었지만,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니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 첼로가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첼로의 저음이 마을을 울리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타악 & 댄스 다문화를 품다

단체명 대구타악연구원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3:30 - 16:30

교육장소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114길 9, 2층)

프로그램 내용

- 퍼포먼스난타: 국악장단과 퍼포먼스 동작을 응용한 리듬퍼포먼스 교육
- 댄스: 나라별 전통춤을 난타음악에 맞추어 리듬 동작을 응용한 댄스 교육

교육대상 다문화 가정 가족(총 2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성미정, 김미나
- 보조강사: 이은애, 석연남
- 기획자: 박태선

강사 및 **참여 강사: 성미정**

참여자 후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만나는 시기가 늦추어지고 횡수가 줄어들어서 뒤로하고 난타와 댄스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색다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과 스트레스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지부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사토야스코

처음 접해보는 난타지만 음악에 맞춰서 두드리면 신나고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팍팍 날아가고 좋았어요.

참여 학생 부모: 곤도미키

코로나로 인해 바깥출입이 제한되어서 많이 답답했는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을 참여하면서 댄스와 난타를 배우니 너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린아트합창단

단체명	대한문화예술경영학회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9. 토 / 9:00 - 13:00
교육장소	디아크 문학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57)
프로그램 내용	· 가족중심의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음악)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합창교육, 공예 등을 접목한 복합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중·고등학생 가족 (총 30명)
교육강사	· 주강사: 조충제, 박민석, 박성희, 성정화 · 보조강사: 이신영, 손정은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신영

가족중심으로 집중형 합창교육이 아닌 다양한 분야를 활용하여 추억을 남기는 도구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복합문화예술교육은 미래형 문화예술교육의 진보적인 교육방법으로 교육강사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즐겁게, 행복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운영을 위해 연구하다보니 나또한 역량강화가 됨으로써 나의 교육방향에 대한 미션을 다시 설정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 박해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놀이로 구성해서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바람개비도 만들어 날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서 직접 먹고, 그림그리기와 우리 가족 나무 만들기도 해보고 제일 좋은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매주 놀러 나오는게 나는 너무 좋아요!





엄마랑 창의 상상레시피

단체명	도도 연극과교육연구소
교육기간	2020. 7. 1. 수 - 12. 6. 일 / 13:00 -16:00
교육장소	교육문화공간 틈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45) 행복한 날뽀골 공방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26-35) 비산 2, 3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43)
프로그램 내용	- 연극놀이와 즉흥 상황극, 탈짓, 그림자극 등 다양한 연극적 방법들을 활용하여 엄마와 아이의 교감을 극대화 함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화합을 도모하는 수업 진행 - 마음 들여다보기→드러내기→수용하기→함께하기→주체적으로 서기→지지하기의 일련의 관계개선의 흐름으로 구조화 한 수업 진행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2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윤혜선, 이순애 - 보조강사: 장선주, 김상희 - 기획자: 김은주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윤혜선 가족과 함께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은 처음이라 '어떤 것을 조심해야할까?'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시고 강사보다 먼저 아동들을 격려하며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발표회를 앞둔 지금 신나게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아동들과의 생활까지 이어지는 연극장면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고, 아동들도 부모님과 함께 수업하며 어떤 날은 툭툭거리기도, 어떤 날은 하죽거리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간직될 21차시의 수업이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김경숙

토요일마다 3시간동안 수업에 참여해야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아이가 참여하고 싶어하고 사춘기가 시작 하려는 시기인 듯해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수업을 통해 아이의 꿈 이야기, 미래에 살고 싶은 집 등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었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학과 예술로 소통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단체명 문화교육창작소 봄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문화교육창작소 봄 교육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5길 91)

프로그램 내용 · 가족과 함께 소통하기 좋은 시 4편을 선정하여,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심도 있게 연결되는
프로젝트 형식의 문학과 미술이 융합 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25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박지현, 윤미경
· 보조강사: 유현미, 김동앵
· 기획자: 신재희

강사 및 **참여 강사: 박지현**

참여자 후기 시 문학과 시 문학의 이해와 감성을 도와주는 미술을 연결하여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 수업시간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족들은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 수업으로 늘 즐거웠습니다.
시와 연결한 미술작품의 완성도가 높았고 가족별 다양한 작품 전시로 전시장을 빛내서 흐뭇했습니다.

참여 학생: 염태현, 부모: 송재정

평소에 시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어색 했는데,
지나고 나니 시 낭송 시간도 미술로 체험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아이랑 뜻깊은 시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만두 선생님 미술시간 너무 재미 있었어요 ^^



엄마와 나, 놀이와 예절을 담다

단체명 (사)한국예다문화원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4:00 - 17:00

교육장소 (사)한국예다문화원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42-34, 3층)

프로그램 내용 · 전통놀이와 예절놀이, 현장체험 등 융합교육으로 자녀와 부모 세대 간 재미와
인성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단위 활동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40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박태순
· 보조강사: 박남희, 박태숙
· 기획자: 권태룡

강사 및 **참여 강사: 박태순**

참여자 후기

전통에 내재된 엄격한 문화를 현대 가족들이 다가가기 쉽게 놀이문화로 접근하였다.
전래놀이와 다레놀이, 예절놀이 활동, 현장체험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며 진행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의지하고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기획 의도인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놀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 자녀와의 신뢰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됨을 느꼈습니다.
1기 결과발표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따라와 주신 가족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다양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 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대구문화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참여 학생: 최경록, 부모: 현혜정

아름답게 다도의 멋을 즐겁게 전통놀이의 흥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요. 마지막까지 귀한 체험이 되었어요~
기분좋은 저녁도 선물받아 한상 가득 차려 오순도순 놀이와 예절의 추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짱!입니다.
경록이 윤아도 좋은 경험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려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

단체명	아트고리
교육기간	2020. 7. 18. 토 - 12. 6. 일 / 13:00 - 16:00
교육장소	달서구립 달서어린이 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45)
프로그램 내용	· 미술 미션 놀이를 가족과 함께 해결하고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 가족 간의 집중과 균형을 맞추어 가며, 큰 책안에 우리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총 32명)
교육강사	· 주강사: 장하윤, 박채송, 김민주, 박지연, 김대연 · 특강강사: 이종일, 권혜영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장하윤 기획을 준비단계에서는 가족들의 소통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하고보니 가족의 소통과 단합은 벌써 ‘가족의 율타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연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가족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치를 향해 힘을 실고, 생각을 움직이며 미션을 해결해 나갔다. 우리 강사들의 역할은 생각하나를 보태어주는 그저 연결고리일 뿐이었습니다. 가르치고자 한 수업이 아닌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배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토요일이었습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김승현

처음 애들과 함께 참여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같이 해봤던 수업과 비슷할 걸로만 생각하고 그냥 같이 가서 앉아만 있다 오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두 번 수업을 참여해보니 어느 순간 보호자가 아닌 저희 애들의 친구의 자리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3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수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가족들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가 커갈 수 있던 자리였고 애들이 수업을 기다려하니 정말 좋은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로 황금알을 낳는 우리 동네

단체명	아트그룹 AMuse
교육기간	2020. 8. 1. 토 - 12. 12. 토 / 9:30 - 12:30
교육장소	황금사회종합복지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1)
프로그램 내용	· 음악과 음악놀이를 통해 기초적인 음악적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가족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 · 음악, 미술, 영상, 글쓰기,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접목시켜 가족이 함께 하는 통합된 예술교육 · 영상과 글쓰기가 통합된 우리가족 사진첩과 우리가족 신문 만들기 등을 통한 가족 힐링교육 · 가족과 함께 신체 놀이로 습득하는 음악 기초교육
교육대상	초등학교 - 중학교 가족 (총 1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이희주, 이정연, 윤민경, 이희령, 이윤정, 현숙경, 박준형, 배규희, 하지현, 김보라 · 보조강사: 김현진, 김다해 · 기획자: 엄윤숙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이희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주매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조금 더 나은 진행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고,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해맑게 웃는 모습에서 수업 진행자로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그 자체에 감사함을 느끼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입니다.
----------------	---

참여 학생 부모: 이선아

토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이라 가족모임이나 기타 행사들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수업에 꼭 참여해야 한다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나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간단한 음악이론이나 일지라도, 게임과 놀이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고, 단계별 수업 진행으로 마지막에는 가족 노래를 작곡하고 발표회 까지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져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며 온다는 느낌과 수업을 통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미술과 사진 수업이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되어 통합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팝스 오케스트라

단체명	아트문화센터
교육기간	2020. 7. 4. 토 - 11. 28. 토 / 10:00 - 12:00
교육장소	아트문화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71)
프로그램 내용	·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가족과 함께 배우고 연주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 성인 (총 25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은규, 최수혁, 이경희, 김유진, 양의진 · 기획자: 김미화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유진_플룻강사 교육장소가 넓고 깨끗해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배움에 목마른 지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은 멀지만 강사로서 참여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 자발적인 동기가 강하고 매주 1회, 2시간의 레슨과 합주 시간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은 주중에 연습을 많이 해 오시니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주 중에도 문의를 해 오는 수강생들이 있어서 그 열정에 감탄하였고, 매주 실력이 쌓이면서 오케스트라 합주에서 독주를 하는 것을 보니 강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렛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 학생(조소희) 모 처음에 바이올린을 집 근처에서 가르쳐준다고 너무 좋았고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늘 따라다녔는데 어려운 파트에서는 힘들어서 의욕이 저조하기도 했지만 매주 빠짐없이 심히 나오다 보니 바이올린의 기초를 닦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쾌적하고 매주 간식도 챙겨주시고 강사님과 운영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서 정말 좋았다. 감사합니다.
----------------	---



은빛채널

단체명	아하호(AHAHO) 사랑공동체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12.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6길 11)
프로그램 내용	· 조부모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교육으로 가족 간의 소통과 추억을 만들고, 손자손녀에게는 영상편집 기술을, 조부모들에게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소통을 돕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조부모님과 초중학생 손자손녀 11가족 (총 26명)
교육강사	· 주강사: 김경아, 문혜영, 임지혜, 최유진 · 보조강사: 우연희 · 기획자: 김삼연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김경아 코로나의 상황 속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모집에서부터 진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자손녀와의 추억을 남기는 영상들은 조부모님 뿐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는 부모님들까지 가족 모두의 소통의 장이 되었고, 귀한 추억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속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느라 너무나 수고해 주신 모든 강사, 보조강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참여 강사: 임지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핸드폰과 가까워진 우리 아이들... 가족이 모두 모여 눈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은 요즘시대에 핸드폰을 멀리하라는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매개체로 재미있고 지혜롭게 가족이 융화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실제로 첫 소개영상에서는 쭈뼛이던 모습이 마지막 온라인 시사회영상에서는 더없이 활짝 핀 웃음으로 마무리하는 조손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어색하고 어쩌면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재미있고 행복하게 영상을 만들고 편집해준 우리 은빛채널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참여 학생: 도은비 안녕하세요 도은비입니다. 은빛채널을 하면서 외할머니와 훨씬 친해질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함께 국수도 만들고 치킨도 먹으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많은 영상편집 기술을 알려주신 선생님들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는 은빛채널 수업이 좋은 추억이었어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장애아동, 그 가족과 함께하는 'Begin Again'

단체명	예봄협동조합
교육기간	2020. 7. 1. 수 - 11. 28. 토 / 17:30 - 20:30
교육장소	예봄협동조합 교육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길99)
프로그램 내용	·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 그리고 비장애인 일반인 가족들과 함께 난타와 댄스를 배우고 익히며 소통하고 즐기는 장애 통합 사회인식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가족 (총 37명)
교육강사	· 주강사: 박남희, 이채희 · 보조강사: 이아현 · 기획자: 황현주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박남희, 이채희 장애 아이들과 부모님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부모님들에게는 축적된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참여 강사: 이아현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즐거웠고 수업시간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나연맘 외 2명

- 내가 문화예술을 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리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업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확실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다음에 또 만나요. 1기, 2기가 아닌 전체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플레이 더 씨티: 북성로편

단체명	홀라(HOOLA)
교육기간	2020. 7. 4. 토 - 12. 5.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6길 92-1)
프로그램 내용	· 도시(대구 북성로)를 걷기와 탐사를 통해 장소의 고유한 자원(사운드, 공구, 재료, 기술 등)을 가지고 악기와 음악으로 만들어 플레이하고 공유하는 과정
교육대상	유아 - 초등학생 가족 (총 13명)
교육강사	· 주강사: 안진나, 나제현, 문종민, 문찬미 · 기획자: 김효선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안진나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도시를 걷고 재료를 채집하고 소리를 실험하고 공구를 다루며 악기를 제작해보는, 호기심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공장들, 소음으로 들렸던 소리, 위험한 줄만 알았던 공구 등을 재발견해가는 참여가족들을 보며 덩달아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후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시에서 다양하게 놀기’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	--

참여 학생: 최이율, 최국승

재밌었어요. 공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와 멋진 공장들에서 기술장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웃기고 만들기 하기 전에 이상한 춤추는 것도 웃겼어요. 그리고 간식을 많이 줘서 좋아요. 다음에도 참여할래요.

참여 학생 부모: 현영진

의욕이 넘치는 동생과 항상 양보하는 누나를 보며 북성로에서 제작 수업이 어떨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여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수업이 잘 진행될지 걱정이었는데, 우수한 선생님들이 각 가족마다 전담해주시며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시는 노하우로 매 수업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을 기다리게 만든 꿈다락 수업이에요.



얼씨구 가족합창!

단체명	힐링우체통
교육기간	2020. 8. 22. 토 - 12. 12. 토 / 10:00 - 13:00
교육장소	서구문화회관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403)
프로그램 내용	· 현대사회에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합창프로그램 · 단일 합창프로그램 NO! - 음악과 미술, 체육, 요리 등 다양한 교과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잠재된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 시켜줌과 동시에 가족 간 음악이라는 공통분야로 취미를 공유하고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생 가족 및 친인척 (총 35명)
교육강사	· 주강사: 여경민 송성훈 송명훈 우명선 양지민 김유리 김지원
강사 및 참여자 후기	참여 강사: 우명선 꿈다락 가족합창단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과연 많이 모일까? 모인다고 하더라도 참여도가 높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방향에 대해 깊이 숙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참여하여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석률이 낮았고 또 그 수업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로 집중하여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중하고 참여도가 높으니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집중하며 참여도가 높아 어린이 수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 간 관계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처음엔 짧은 마디로 시작해서 수업의 중반쯤에 도달했을 때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 지금 현재에 우리 가족의 마음이 어떤지 공유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참여 학생 부모: 남현서 외 3명 매주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요리, 만들기 수업 등을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도 저희부부도 항상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수업 전 오늘은 무슨 수업이냐고 아이들이 기대하고 만들기 시작 전 해당주제나 음악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자료들을 이용해 흥미유발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칫 힘들 수도 있는 합창 수업도 잘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게 연습했어요. 수업 후에 아이들도 기분 좋아지고 가족모두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지도 못하고 답답했는데 예방수칙도 철저히 해주셔서 안심하고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배운 노래들로 가족 모두 함께 합창 할 수 있는 무대도 기대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기타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 작담회

-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알림 ON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1회차

연수명 문화예술교육 본질과, 앞으로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대한 고찰

연수기간 2020. 9. 22. 화 - 9. 25. 금 / 4일간(총 23시수)

연수장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연수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예비인력 등 (총 55명)

연수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강사	시수
1일차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와 바람	박재환 : 멜리펀트(주) 대표	3
		새로운 시대인식과 미래준비	이호석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소장	3
2일차		브랜드(마케팅)	이연수 : (주)아트앤컴 대표	3
		웰메이드 교육 청사진 그리기	조혜연 : 이앤엘컬처 대표	3
3일차		문화예술교육의 20년	이현혜 :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3
		문화예술교육자로서의 소양		3
4일차		링크센터 인스티튜트의 이해와 적용	권소정 : 통합예술교육연구소 '다락' 대표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2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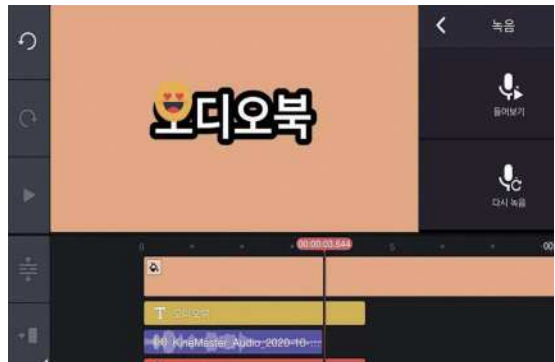
연수명 문화예술교육 본질과, 앞으로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대한 고찰

연수기간 2020. 10. 12. 월 - 10. 15. 목 / 4일간(총 21시수)

연수장소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연수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예비인력 등 (총 69명)

연수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강사	시수
1일차		비대면 미디어 플랫폼 문화예술교육	최재용 :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원장	3
		언택트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기	최지훈 : 한국서비스인재양성연구소 대표	3
2일차		언택트 학습 자료 만들기	박명호 : 작은숲미디어교육연구소 대표	3
3일차		미디어 활용법 1: 유튜브		2
		미디어 활용법 2: 화상회의	하진형 : (주)미라클팩토리 팀장	2
		미디어 활용법 3: 콘텐츠		2
4일차		언택트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자		3
		언택트 시대의 기술과 콘텐츠	최재혁 : (주)알앤디웍스 프로듀서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3회차

연수명	온라인&융복합 교육을 위한 기술 능력 향상
연수기간	2020. 11. 9. 월 - 11. 12. 목 / 4일간(총 22시수)
연수장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연수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예비인력 등 (총 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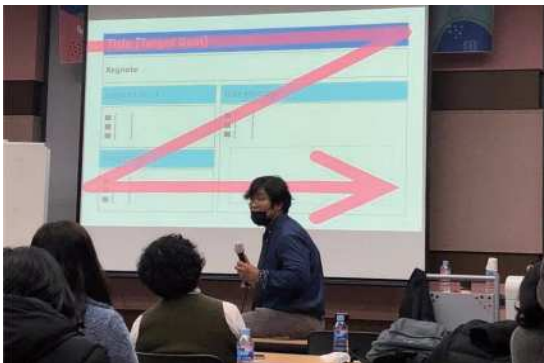
연수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강사	시수
1일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융복합 학문의 시대적 흐름	이상돈 :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과 강사	4
		융복합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	이상돈 :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과 강사	4
2일차		Data & Information	김영모 : (주)한국인재경영교육원 총괄본부장	3
3일차		창의적인 온라인 수업 능력	박점희 : 신나는 미디어교육 대표	5
4일차		디지털 테크놀로지1(음악)	장규수 : 연예산업연연구소 소장	3
		디지털 테크놀로지2(미술·영상)	박상훈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감독	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4회차

연수명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들
연수기간	2020. 11. 23. 월 - 11. 26. 목 / 4일간(총 24시수)
연수장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연수대상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예비인력 등 (총 70명)

연수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강사	시수
1일차		소통의 중요성	박동주 : 글로벌공감교육센터 대표	3
		이미지메이킹	김예진 : 김예진 기업교육연구소 대표	3
2일차		올바른 법 인식 1	윤형근 : 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3
		올바른 법 인식 2		3
3일차		기획서 작성 및 역량강화 1	이정훈 : 마크원 대표	3
		기획서 작성 및 역량강화 2		3
4일차		실무에 필요한 회계기술 1	박준석 : 한미 회계법인 회계사	3
		실무에 필요한 회계기술 2		3



문화예술교육 좌담회: 1회차

개최일시	2020. 10. 28. 수
주제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사업 발전방향 : 지역 문화자원 연계와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참여자	최진아 :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전영권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손민정 : 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 센터장, 한지슬 : 퍼실리테이터_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강사

진행내용



사회문화예술교육 중에서도 특히 지역 문화자원 연계,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은 해가 거듭될수록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 문화자원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 줄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43회 좌담회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 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통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020년 10월 28일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지슬 퍼실리테이터(경북대학교 강사)의 진행으로 최진아(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손민정(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 센터장)등과 함께 지역 문화자원의 연계 방법과 그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 ‘창의도시재생’의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를 엿보다.

도시재생은 역사의 시간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와 견주어 본다면 문화예술교육이 이미 내재 되어 있던 것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그렇다면 창의도시재생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그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최진아 팀장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재개발과 관련되어 시설물 개설, 동네 환경 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성격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다양한 행사, 각종 모임 등을 통한 문화적 소양 함양 등의 소프트웨어로 나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의 의미는 마을 또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화예술 분야들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일인 만큼 문화예술교육은 도시재생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되기 위해 기여 하는 분야로 그 의미를 짚었다.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이 시설기반 쪽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이제는 시설의 용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간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고자 하는 변화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마을시설 조성을 위해 커뮤니티센터 같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진행된다 보니 차후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를 할 때는 막연하게 접목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그릇이 될 시설들이, 실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쉽지 않겠지만 기관들이 사전단계부터 사용 용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래서 기획의 단계부터 전문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도시재생과 같은 기관의 입장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지만, 조화를 잘 이룬다면 창의도시재생에 문화예술교육이 잘 녹아든 좋은 프로젝트들이 나올 것이라며 모두 의견에 공감했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와 준다면 문화예술교육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좌_최진아 팀장(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우_손민정 센터장(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이러한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최진아 팀장은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시했다.

“문화예술교육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일들은 항상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프로그램들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연결도 해 보고,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 공유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찾다.

지역 문화예술 중심 프로젝트, 지역 사회 기반 예술, 지역 사회 초점 예술, 지역 문제 중심 프로젝트, 지역 연계 등 지역 사회 중심 예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장하려는 기반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 문화자원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풀어내기 위한 긍정적 목적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무엇이 있을까?

전영권 교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했다.

첫째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구분이 없고 대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신라는 삼한 시대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모두 대등한 입장이었다고 예를 들며, 모든 지역은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마인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을 향한 자존감과 대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마인드는 문화재단 혹은 좌담회에 모인 도시재생, 경제문화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재단들이 판을 열어주고, 그 판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해지면, 그 내용을 대중과 공유하면서 마인드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두 번째는 지역 문화자원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왜곡되어 전해진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 가지 단면만 가지고 치우치면 예상치 못한 의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예로 근대 골목이 활성화되면서 마치 대구는 근대화 밖에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다고 했다. 전영권 교수는 지역 문화자원을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을 풀어낼 장(場)이 필요하다고 한다. 광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대구에는 광장이 없음에 아쉽다고 했다. 광장이 없으니 나눔의 문화가 부족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이다. 앞서 말한 마인드를 바꾸고, 지역 문화자원을 왜곡시키지 않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더하여 교육청과 같은 기관들의 연계가 되어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좌_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우_한지슬 강사(퍼실리테이터_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강사)

마인드의 변화, 지역 문화자원의 전문적 지식 보급,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덧붙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지역학이 참 중요합니다.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우리 대구라는 지역이 이렇게 소중한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대구는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대구에 대해 잘 알아야 애착심이 생기고 그걸 연계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듣다.

문화예술교육이 예술을 잘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내재 된 예술성을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까?

손민정 센터장은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같은 경우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문화도시, 네트워크 도시, 시민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공유하며 발전을 한다고 했다. 현실적 문제는 지역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지역 특성화라 할 수 없기에, 지역특성화사업이 지역의 깊은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지역의 일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성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공유 및 협업을 말했다. 인맥을 통해 서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이외에는 교류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자 일 수도 있는데 서로 교류가 없으면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기 쉽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협업하는 과정을 통하면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밑거름이 되는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10년 이상 기본기로 다지라고 조언했다. 그 후엔 ② 얇고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했다. 그리고 ③ 현장 경험을 통한 연계를 강조했다. 이는 대구문화재단에서 작은 미니프로그램을 기획해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젊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다고 했다.

“그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대구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깐요. 현재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막 시작하는 젊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하고 싶은 일 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재단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서는 사실 자꾸 쓰다 보면 늘잖아요. 개인이 쓰는 거랑 단체에서 쓰는 건 또 다르기는 하지만 기회를 열어주고, 그 기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에 지역문화자원을 담다.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현진 과장은 지역 특성화의 범위는 문화자원 그 자체일 수도 혹은 지리적 영역, 지역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들이 결합되어 곧 콘텐츠가 된다고 하였다. 전영권 교수의 말처럼 문화자원은 왜곡되지 않게 고증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지역 특성화 콘텐츠를 예술교육 현장에서도 계속 찾아보고 도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지역자원, 지역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점점 영역이 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러기에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관계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요청하며, 대구문화재단도 여러 가지 교육 형태를 활용해 문화자원, 지역특성화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진아 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노력으로 대구 색깔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며, 전문 예술가들의 장점을 발휘해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민정 센터장은 문화예술이 지속적인 변화와 관계를 통해 변화하며 나아간다고 했다. 지역 특성화 사업들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지역민을 위한 사회의 요구이자 기회라고 했다.



전영권 교수는 대구문화재단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자들은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의 마지막 결실의 꽃은 문화예술이다.’ 라면서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지 않는 문화예술을 부각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국민 수준이 따라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한지슬 퍼실리테이터는 공유와 소통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라고 했다. 모든 산업의 마지막 결실은 문화예술이라는 전영권 교수의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문화자원과 효율적으로 잘 연계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같은 자리가 문화예술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면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문화예술교육 좌담회: 2회차

개최일시	2020. 11. 20. 금
주제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 신규단체 공모사업 진입 활성화 및 공모지원사업의 다각화
참여자	이현혜: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효정: 예술로(대구) 대표, 장하윤: 아트고리 대표, 한지슬: 퍼실리테이터_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강사

진행내용 공모(公募)란 널리 알려져 사람을 모으는 뜻으로,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 사업을 시행할 자를 공개하여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단순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장 제1조)을 가지고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44회 좌담회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을 통해 고민해 보았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이현혜(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효정(예술로(대구) 대표), 장하윤(아트고리 대표)을 모시고, 한지슬 퍼실리테이터(경북대학교 강사)의 진행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 경북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중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책을 빼대 삼아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이해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현혜 팀장을 통해 전국 공통 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경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주제를 정해 운영되었고, 작년 2019년부터 자유주제로 변경하여 주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공모는 거점형 기획 공모와 일반 공모로 나누어 그 유형을 설명하였다. 기획 공모는 지역자원 및 지역 네트워크·지역 거점 단체로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어 시, 군 단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군별 특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공모로 운영되는 ‘이웃사촌’은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다음으로는 이웃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2~3년 이후는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좌_이현혜(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우_장하윤(아트고리 대표)

경북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특징 있는 사업으로는 ‘오감백감(五感百酣)’ 지원 사업을 예로 들었다. 매해 주제를 정해 사업이 운영되는데 2020년 올해는 연구모임 및 직업군별(공무원, 교원 등) 대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규단체 공모사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생애전환 50+세대, 노년) 지원사업 중 경력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선정된 단체는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책임자가 밀착 컨설팅하여 아이디어가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 형태에 대해 이효정 대표가 대구와 경북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경험을 말했다. 경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된 단체에 사업의 흐름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피드백을 통해 성장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전반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 많은 경쟁자가 응시하는 만큼 경쟁을 통한 자생의 방법들을 스스로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현혜 팀장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신규단체들의 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이 타 기관과의 협업이 어려운 문화예술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목적과 의의가 변질될 수 있기에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존 단체의 확장과 신규단체의 진입을 통해 그 의미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 공모사업을 통한 기존 단체 협업의 의의

예술로(路)의 사업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인 예술인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예술로의 사업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예술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가치를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좌_ 이효정(예술로(대구) 대표), 우_ 한지슬(퍼실리테이터_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강사)

이효정 대표는 ‘함께 성장’이라는 신조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융합, 그리고 교과과정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 개발은 전문공연을 토대로 한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타 기관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형태라고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중점을 두는 것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 접목을 통한 융합을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 가령 연극을 토대로 샌드아트, 마술, 댄스, 국악 등을 접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통합예술교육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장르가 협업하는 경우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소통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문가 수준으로 다른 장르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회의나 연구 과정을 통해 부딪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단계별 과정과 내용, 그리고 현장을 운영함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팀원들은 호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은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스스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이효정 대표는 올해 코로나 19라는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교과과정 중심 프로그램은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들을 고민했다고 한다. 이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도구로써 미디어 선정에 대해 의견들이 오고 갔다. 비대면 형태로 영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미 수요자는 질 좋은 영상들에 익숙해져 있어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현혜 팀장은 비대면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영상 제작 공모사업 진행 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효정 대표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작 중이라고 한다. 소셜네트워크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영상 송출방식이 간편한 점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모두 비대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문화예술교육만큼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장하운 대표는 문화예술교육은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공감해 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한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 삶 속에 문화예술을 녹이는 신규단체의 노력

장하운 대표는 처음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다른 단체들과 작업한 경험이 있어 도전하기 유리했다고 한다. 공모사업 단체로 발을 디딘 것은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에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의 소중함을 언급했다. 특히 기억이 남는 사업으로는 2019년에 운영했던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사업이었다고 한다. 처음 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족프로그램으로 확대했고,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참여자와 운영자 모두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일 경우 참여하려는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인 운영단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힘들어 있음을 토로했다. 공모사업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와 재미를 부여하며 사업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신규단체는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변인들의 경험을 흡수하고, 실제 다양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 강사료와 관련된 의견을 언급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실제 교육시간뿐 아니라 교육 준비시간과 마무리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교육시간만 책정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 인건비를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운영하기 편했다고 한다.

장하운 대표는 공모사업 운영에서 생긴 피로감으로 사업을 줄이고 개인 예술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한다. 이현혜 팀장도 5년 이상 잘 유지해온 기존의 단체들도 공모사업보다는 잠시 쉬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단체들이 많이 지고 있다고 했다. 기존 단체들의 누적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신규단체도 공모사업 운영을 위한 피로가 해결될 수 없음이 안타까운 부분이다. 더 많은 신규단체가 공모사업에 진입하고, 기존 단체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들의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 문화예술교육, 모두에게 지원을 보내다.

이현혜 팀장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문화예술교육 대상(大賞)’을 만들어 그 해 문화예술교육 관련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열정을 응원하는 이벤트 성격을 지닌 장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는 녹록지 않은 문화예술교육의 험난한 길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이루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대구문화재단 진시우 문화예술교육팀장은 공모 지원사업이 다각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문화재단 실무자와 문화예술교육 단체 운영자 간의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과 귀로 경청하겠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 소통의 중심에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이 있겠다고 약속했다.

공모사업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이 톡 쏘는 탄산수처럼 명쾌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이러한 노력이 미약하나마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운영 실무자와 현장의 기존 단체 및 신규단체들의 요구와 노력이 답을 찾아가는 열쇠가 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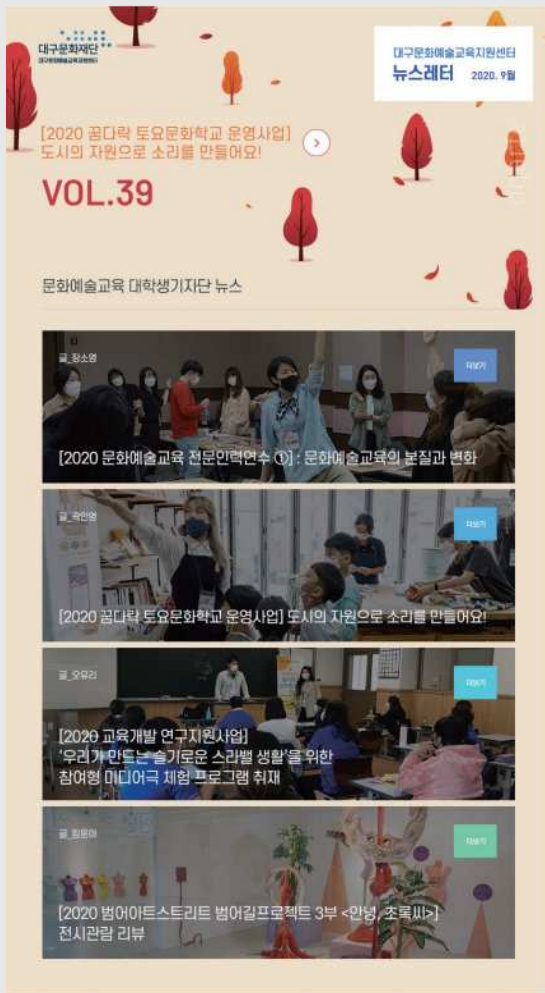
운영기간 2020년 1 - 12월

참여대상 지역 내 문화예술 및 인문분야 전공 대학생 총 4명

운영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장 취재 및 뉴스레터 발간

구분	취재내용	취재기자
1회[7월]	색을 매개로 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세계 "각·색"展 관람 리뷰	오유리
	<중국 남방의 빛과 바람: 광시 복식 문화> 전시 관람 리뷰	곽인영
	<2020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온라인 토론회 리뷰	임윤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전시 <새로운 연대>	장소영
2회[8월]	대구의 문화·예술공간 소개 I : 폐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고모역복합문화공간"	장소영
	범어아트스트리트 범어길프로젝트 2부 <노마디즘: 사유의 여정展> 관람 리뷰	임윤아
	보이드 갤러리에서 만나는 2020 인생나눔교실	오유리
	카메라 속 삶을 담아내는 사람들	곽인영
3회[8월]	대구의 문화·예술공간 소개 II : 역사를 담은 간이역 "고모역복합문화공간"	곽인영
	<2020 수창동 스펀오프>展 유윤진 개인전 "생(Life)_밀려오는 파도처럼"	오유리
	<2020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하우스콘서트 시리즈> 공연 관람 리뷰	임윤아
	우리 동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파출소 달서"	장소영
4회[9월]	[2020 범어아트스트리트 범어길프로젝트 3부 <안녕, 초록씨>] 전시관람 리뷰	임윤아
	[2020 교육개발 연구지원사업]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스라벨 생활'을 위한 참여형 미디어극 체험 프로그램	오유리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도시의 자원으로 소리를 만들어요!	곽인영
	[202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①]: 문화예술교육의 본질과 변화	장소영
5회[10월]	[202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②]: 더욱 가깝게, 더욱 편하게(미디어 플랫폼 활용)	장소영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사업 취재: '위드라이프 스토리'와 인생을 나누다	임윤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취재: 무학숲 속 교육연극 한마당	오유리
	<숲 속을 걸어요, 해님 달님 속삭이는 길>	오유리
6회[11월]	[202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③]: 온라인&융복합 교육을 위한 기술 능력 향상	임윤아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린아트합창단"	오유리
	<제43회 대구문화예술지원센터 좌담회>: 지역특화형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발전 방향	곽인영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흙으로 빛는 가족사랑	임윤아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섬여름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곽인영
	<제44회 대구문화예술지원센터 좌담회>:	임윤아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관리자	임윤아

자세한 뉴스레터 보기는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garte.or.kr에서 구독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콘텐츠 인쇄 | URL 복사 | +

뉴스레터

기사목록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도시의 자원으로 소리를 만들어요]

2020.09.29

[9월]

[202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취재: 도시의 자원으로 소리를 만들어요]

2020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특이문

대구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 문화 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여기문화 초성을 증진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문학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특색있는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사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예술단체 '홀라(HOLLA)'가 진행하는 '홀라 이 더 시티'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9월 19일, 목요일 기술예술융합소 오루에서 '홀라 이 더 시티'의 첫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홀라 이 더 시티'는 11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며, 원래는 20명을 정원으로 모집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인원이 조금 조정되었다. 최종 세팅의 가족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서로 자리를 띄워 앉아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수업이 이루어졌다.

'play'의 뜻인 시작하다, 재생하다, 놀다, 연주하다 등의 뜻과 'city'도시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수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을 아나갔다.



기술예술융합소 오루의 모습

수업은 아이들에게 복성로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됐다. 현재 복성로에는 많은 먹거리와 매점 카페들이 있지만, 오늘날 복성로를 있게 만든 것은 바로 복성로 산업공구거리이다. 복성로에 가면 탕크도 만든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곳에는 다양한 공구와 불철제품들을 파는 가게 한여 개 정도가 밀집되어있다.

수리하는 사람들, 분해하는 사람들, 다시 재료를 물이기는 과정 등을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도록 쉽고 재밌게 설명하면서 어려운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을 융합하면서 우리만의 연주를 만들어가는 수업임을 알렸다.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

'홀라 이 더 시티'는 복성로를 중심으로 도시에 있는 자원들을 재창해 융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소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원까지도 재료로 가져오고, 이것을 직접 실험해보고 두드려보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자극한다. 제작부터 연주하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손을 거쳐 직접 만들어보게 하면서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들을 예술로 승화시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손과 도구를 이용해 악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완성 후 끝이 아니라 이것을 연주로 활용한다는 것에서 더 큰 효율성과 장점이 있는 수업이다. 기술과 예술을 놓아서는 개념으로 쉽게 접근하는 동시에 도시 속 자원과 생활 속의 재료들로 악기를 만들어보면서 실용적이고 어른과 아이 모두 즐겁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뉴스레터

콘텐츠 인쇄 | URL 복사

뉴스레터

기사목록

[202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②]:
더욱 가깝게, 더욱 편하게(미디어 플랫폼 활용)

2020.10.30

[10월]

[202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②]: 더욱 가깝게, 더욱 편하게(미디어 플랫폼 활용)

2020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정소영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0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 ②"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구텍스타일플랫폼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및 예비인력 29명이 참여했고, 총 2시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가자 등록

'전문인력연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및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및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4회차까지 이어질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연수는 문화예술교육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변화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9월에 진행된 연수 1회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모습 및 언택트 교육의 방향성을 진단했다. 이번 연수 2회차에는 1회차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비대면 미디어 플랫폼을 교육 및 활동방법, 언택트 시대의 기술과 콘텐츠, 그리고 언택트 학습 자료 제작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1일차(10월 12일)에는 한국수업미디어진흥원장 '최재용' 강사가 교육을 시작했다. 언택트 시대의 미디어 플랫폼을 전파와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미디어 플랫폼이 활용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비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달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숙지해야 하고, 교육 담당자와 학습자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비대면 강의의 실효를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는 즉 언택트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로 '뮤럴(MURAL)'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서비스인태양성연구소 CEO '최지훈' 강사가 언택트 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온라인 교수법을 교육했다. 교육 기획 및 온·오프라인 진행·오프라인 본 강의 참여 활동 순서에 맞게 운영 진행 노하우를 강조했다. 또한 실천에 계획하여 적용하도록 커스터마이징 전략 가운데 하나로 4MAT 시스템이 소개되었다.



뉴스레터

콘텐츠 인쇄 | URL 복사

뉴스레터

기사목록

<제44회 대구문화예술지원센터 좌담회> :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

2020.11.30

[11월]

<제44회 대구문화예술지원센터 좌담회> :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

2020 문화예술교육 대학생기자단 탐문기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

— 산규단체 공모사업 참여 활성 및 공모지원사업의 다각화

이현혜(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효정(예술교(대구) 대표),
장하문(아트고리 대표), 한지슬(예술미래학자)

공의 []만 널리 알려져 사업을 모른다.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 사업을 시행할 자를 공개하여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단순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과 현안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조 제3호)을 가지고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제44회 좌담회 <문화예술교육 공모 지원사업의 한계성 및 발전 방향>을 통해 고민해 보았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이현혜(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 이효정(예술교(대구) 대표), 장하문(아트고리 대표)을 모시고, 한지슬(예술미래학자(경북대학교 강사)의 진행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 경북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중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정책을 확대 삼아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이해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현혜 팀장을 통해 전국 공통 사업인 '풀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경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었다. 풀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매년 주제를 통해 운영되고, 작년 2019년부터 자유 주제로 변경하여 주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공모는 거점형 기획 공모와 일반 공모로 나누어 그 유형을 설명하였다. 기획 공모는 지역자활 및 지역 네트워크 지역 거점 단체로의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지역은 지역적으로 연이 없이 시, 군 단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 군별 특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 공모로 운영되는 이웃사촌은 이웃의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다음으로는 이웃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여 녹여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2~3년 이후는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알림 ON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새소식,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www.dgarte.or.kr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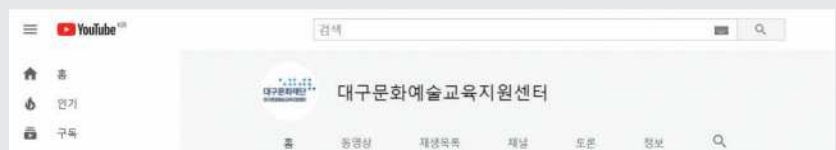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비대면 콘텐츠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유튜브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블로그/페이스북

블로그
blog.naver.com/dgarte2010



페이스북
www.facebook.com/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구문화재단 운영

문화공간

대구예술발전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www.daeguartfactory.kr



대구예술발전소

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42

www.dgpf.or.kr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지하 2410

www.beomeoartst.or.kr



가창창작스튜디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57길 46

www.gcartstudio.or.kr



예술인지원센터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22길 31-12

www.artistcenter.or.kr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arte 라이브러리

lib.arte.or.kr



관련 사이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대표 홈페이지

www.toyo.or.kr



2020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결과자료집

대구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천진낭만예술학교
1318예술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타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재)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garte.or.kr
주소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문의	t. 053 430 1281-4 / f. 053 422 1219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목적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